

박 사 학 위 논 문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이 상생관계에 미치는 영향

-A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2015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양 용 현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유연우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이 상생관계에 미치는 영향

—A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Provided by a Bank
to Its Client Companies on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 Focused on the Case of A Bank—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양 용 현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유연우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이 상생관계에 미치는 영향

-A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Provided by a Bank
to Its Client Companies on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 Focused on the Case of A Bank-

위 논문을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양 용 현

양용현의 컨설팅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이 상생관계에 미치는 영향

-A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양 용 현

최근 한국의 금융산업은 겸업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치로 대형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의 성숙기 진입, 금융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금융산업의 규제 감독 강화 등 은행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의 경쟁환경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고객의 변화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개척 등 신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저성장기조의 경제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쟁심화에 따른 기업의 수명주기가 단축되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환경의 경쟁심화 및 성장둔화는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며, 이는 은행의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동반부실 위험이 내재되어 은행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동반부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컨설팅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은행 컨설팅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제고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경영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수진기업의 성과에만 집중되어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과 거래기업의 상호의존성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은행 컨설팅의 제한적인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이 상생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측면의 경영성과를 살펴보았고, 은행측면의 성과로는 여신자산의 건전성과 은행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A은행에서 경영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동 기업과 총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통제기업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과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변수를 이용한 다변량회귀모형과 매출액 및 자산규모를 이용한 통제기업 대응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각 다변량회귀분석에는 시장의 특성, 산업의 특성, 연도별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고, 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성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미친 결과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성비율이 증가하였고, 총자산회전율이 증가하였으며 생산성이 유의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셋째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은행 기여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고객관계가 개선되거나 정보비대칭이 완화되어 대출기회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거래기업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관계개선 내지는

정보의 비대칭 완화로 차입금 조달을 통한 자본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됨으로써 유동성이 확보되어 은행에 대한 저축 여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무엇보다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컨설팅제공자 측면에서의 성과인 관계개선을 통한 은행측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상생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관계를 규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경영컨설팅과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및 은행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은행과 고객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써 경영컨설팅의 중요성 및 문제점을 제시하여, 은행컨설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처럼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성과가 단기적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데이터의 한계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은행컨설팅, 상생관계, 경영성과, 은행 기여도, 여신자산 건전성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2.1 이론적 배경	4
2.1.1 은행산업의 현황	4
2.1.2 은행 컨설팅 현황	5
2.1.3 A은행 컨설팅 현황	6
2.2 선행연구	8
2.2.1 경영컨설팅과 경영성과	8
2.2.2 자본비용에 관한 연구	12
2.2.3 여신자산 건전성	13
2.2.3.1 여신자산 건전성 관련 법규 및 규정	13
2.2.3.2 A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 제 규정 등	14
2.2.3.3 여신자산 건전성에 관한 선행연구	15
2.2.4 신용평가	16
III. 연구설계	20
3.1 연구방법	20
3.1.1 연구모형	20
3.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2
3.1.2.1 경영성과	22

3.1.2.2 기여도	23
1) 기여도 정의	23
2) 수신평잔(3개월), 여신평잔(3개월)	24
3.1.2.3 여신자산 건전성	25
1) 여신자산 건전성의 정의	25
2) 신용등급	25
3) 신용평점	26
3.1.3 Matching Sample Design	27
3.2 가설설정	29
3.3 표본선정	34

IV. 실증분석 35

4.1 기술통계량	35
4.2 상관관계 분석	37
4.3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38
4.3.1 경영성과	39
4.3.1.1 안정성지표	39
1) 부채비율	39
2) 차입금의존도	41
3)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42
4.3.1.2 수익성지표	44
1) 매출액영업이익률	44
2) 매출액경상이익률	45
3)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47
4) 매출액순이익률	48
5)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50
6) 총자본순이익률	52
7) 이자보상배율1	53
8) 이자보상배율2	54
9) 자기자본순이익률	56
4.3.1.3 성장성지표	58

1) 총자산증가율	58
2) 유형자산증가율	59
3) 자기자본증가율	61
4) 매출액증가율	62
4.3.1.4 활동성지표	63
1) 총자본회전율	63
2) 유형자산회전율	65
3) 매출채권회전율	66
4) 매입채무회전율	67
5) 영업자산회전율	69
4.3.1.5 생산성지표	70
1) 총자본투자효율	70
2) 부가가치율	72
4.3.2 여신자산 건전성	73
4.3.2.1 신용등급(CREDIT)	73
4.3.2.2 신용평점(SCORE)	75
4.3.3 은행 기여도	76
4.3.3.1 수신평잔	76
4.3.3.2 여신평잔	78
4.4 실증결과 요약	79

V. 요약 및 결론 83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83
5.2 정책적 제언 및 한계점	85

참고문헌 87

1. 국내문헌	87
2. 국외문헌	90

부 록	92
1. 변수의 정의	92
2. A은행의 경영컨설팅 만족도 설문지	94
3. A은행 신용등급 정의	96
4. 컨설팅 수진 전/후의 차이분석	98
5. 극단치 제거 전 데이터의 기술통계량	99
ABSTRACT	100

표 목 차

<표 1> 국내은행의 컨설팅 현황	6
<표 2> A은행의 컨설팅 현황	7
<표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표 4> A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14
<표 5>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36
<표 6>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37
<표 7-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부채비율	40
<표 7-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차입금의존도	41
<표 7-3>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43
<표 8-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	45
<표 8-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경상이익률	46
<표 8-3>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48
<표 8-4>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순이익률	49
<표 8-5>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51
<표 8-6>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총자본순이익률	52
<표 8-7>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이자보상배율1	54
<표 8-8>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이자보상배율2	55
<표 8-9>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자기자본순이익률	57
<표 9-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총자산증가율	58
<표 9-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유형자산증가율	60
<표 9-3>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자기자본증가율	61
<표 9-4>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증가율	62
<표 10-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총자본회전율	64
<표 10-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유형자산회전율	65
<표 10-3>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채권회전율	67
<표 10-4>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입채무회전율	68
<표 10-5>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영업자산회전율	69
<표 11-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총자본투자효율지표	71
<표 11-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부가가치율	72
<표 12-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신용등급	74

<표 12-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신용평점	75
<표 13-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수신평잔	77
<표 13-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여신평잔	78
<표 14> 가설 검증결과	81

그림 목 차

<그림 1> 차이분석의 개요	28
<그림 2> 수진기업 및 미수진기업의 구분	28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금융산업은 겸업화 및 국제화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치되고,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의 침체, 산업의 성숙기 진입, 금융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당국의 금융산업 규제 감독 강화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बैं킹 기업들과의 경쟁이 가속화됨으로써 고객의 변화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IMF 이후 지속된 은행의 가계대출 의존도는 최근 글로벌 경쟁시대의 은행산업에서 내부적으로는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기업자금 공급기능의 악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대출자산의 운영 주체인 기업들은 저성장 기조의 경제환경이 지속되고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쟁심화와 성장둔화는 곧 기업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이는 은행 대출자산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기업과 은행이 상생하는 방안을 절실히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 Board: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K-IFRS)에서의 대손충당금 인식 기준인 손실확정모형이 은행의 대손충당금 인식시기를 늦춤으로써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지하여 발생기대손실모형의 도입을 검토하여 2014년부터 시행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조치는 우리나라 은행산업과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과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은행산업과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회계기준의 개정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 수 있겠지만 은행과 기업이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은행산업 본연의 자금중개 금융서비스가 경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이른바 ‘최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금이 우수한 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대출을 승인하는 은행과 신청하는 기업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사후적으로 기업이 건전한 경영을 통하여 채무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지원은 기업의 건전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정보비대칭이 완화됨에 따라 은행기여도가 증가하는 상생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행의 경영컨설팅의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 전반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경영컨설팅 효과에 대한 고찰은 강성무와 류덕위(2012), 양용현과 유연우(2014) 등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된바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동반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제 은행의 경영컨설팅 데이터에 기반한 컨설팅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은행컨설팅의 개선 동기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경영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수진기업의 성과에만 맞추어 연구된 점, 은행과 기업의 상호 의존적 관계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은행 컨설팅의 다양한 한계로 인하여 연구가 거의 전무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은행의 사례 및 컨설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및 은행기여도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컨설팅 전후,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컨설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는 현시점에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경영컨설팅 역사와 데이터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은행컨설팅 분야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A은행의 실제 경영컨설팅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컨설팅 제공자인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진기업 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컨설팅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양용현과 유연우(2014)는 은행의 경영컨설팅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진기업의 컨설팅 전후 성과차이를 단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전후 성과차이와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과의 성과차이를 분석하였고, 보다 충실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성과의 대용치를 사용하였다.

셋째, 다변량 회귀분석과 통제표본 대응(matching sample design)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효과를 통제하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전후 성과차이와 미수진기업의 성과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은행의 경영컨설팅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살펴봄으로써 현재 은행컨설팅의 문제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2.1.1 은행산업의 현황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과 금융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발전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세계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쟁심화는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금융업 간의 업무영역 확대와 보편화되는 금융의 통합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처하고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거래기법을 개발하는 금융혁신도 이루어졌다.¹⁾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 등에 의해서 부실은행 합병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위주의 과점 형태로 발전하였다. 겸업화 및 국제화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치되고,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의 침체, 산업의 성숙기 진입, 금융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당국의 금융산업 규제 감독 강화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가속화됨으로써 고객의 변화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은행산업은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차원에서 자산건전성 평가를 위한 제도를 개정하고,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및 지배주주 등의 책임경영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써 국내

1) 강종만·김영도(2010)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들의 영업환경과 수익성은 매우 악화되었다. 경기침체는 기업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은행은 대출자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행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실제 대출자산인 기업들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1.2 은행 컨설팅 현황

은행컨설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기업의 연쇄도산이 발생하고 은행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양용현과 유연우(2014)는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은행컨설팅 제공과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한 성과 대응 문제, 은행컨설팅의 짧은 역사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부족 및 역량 부족,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단기성과 위주의 실적평가를 개선하고 컨설팅 성과의 가시화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1>은 국내 은행의 경영컨설팅 현황을 보여준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수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무/회계 및 세무컨설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무/회계 자료는 그 기업의 전반적 성과와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은행의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획득하는 기업의 재무/회계 정보는 외부보고 목적의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축적은 은행이 여신자산인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관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경영컨설팅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컨설팅의 품질을 증가시키는데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국내은행의 컨설팅 현황

구 분	내 용
운영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조직운영	독립부서로 운영하거나, 부서내 하부조직인 팀으로 운영
인력운영	대부분 자체인력으로 충당하고 일부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
제공분야	은행업무와 연관이 있는 재무/회계 및 세무컨설팅에 집중
수 수 료	대부분 무료제공

2.1.3 A은행 컨설팅 현황

<표 2>는 A은행의 컨설팅 현황이다. A은행은 기업가치 향상과 고객과의 관계 강화 목적으로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총 42명의 컨설팅 인력 중에서 전문인력은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과 가업승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수진기업은 컨설팅을 통한 고객관계 개선 및 거래기반 확대, 수익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국내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A은행도 무료컨설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컨설팅 제공 이후에도 컨설팅 수행효과의 지속을 위한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도별 실적에서 가업승계부문 컨설팅이 뚜렷한 성장패턴을 보이지 못한 반면에, 경영컨설팅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A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7개 기업에 불과했던 경영컨설팅 제공이 2013년에는 103개 기업으로 증가하여 7년 사이 약 7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 A은행의 컨설팅 현황

목적	기업가치 향상과 고객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등,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수익을 창출
연혁	2004년 : 기업컨설팅 Pilot 운영(CPA 1인) 2006년 : 컨설팅 개시(컨설팅 전문인력 1인) 2008년 : 컨설팅 본격 실시 2009년 : 가업승계 컨설팅 확대 실시
조직 구성	기업금융본부 내 기업금융컨설팅팀으로 운영 기업금융 마케팅지원 컨설팅과 컨설팅업무 병행
인력 현황	총 42명(은행 직원 37명, 외부 공인회계사 등 계약직 전문인력 5명)
지원 분야	- 경영컨설팅: 기업의 경영현안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 재무부문, 인사부문, 내부통제부문, 금융자문부문 - 가업승계 컨설팅: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지속을 위하여 후계자에게 그 소유권이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지원. * 소유권 승계부문, 경영권 승계 부문
대상의 선 정	- 고객관계 개선 및 거래기반 확대 가능성 - 수익기여 가능성 - 여신 신규고객 유치 가능성 - 기타 주무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수수료	무료서비스 운영 원칙. 2인/4주간을 초과하는 장기 컨설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장이 결정 - 컨설팅의 범위와 기간 - 투입되는 컨설턴트의 수 - 컨설턴트의 평균임금 - 고객의 거래 기여도 - 기타 은행의 정책적 고려사항 전 항의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징수하지 아니 함.

기간	2인/2주간 기준, 컨설팅 수행분야 및 컨설턴트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수행기간을 가감 함							
사후 관리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후 해당기업의 만족도 제고와 컨설팅 수행효과의 지속을 위하여 사후관리 실시. 만족도조사 실시. ²⁾ 컨설팅 관련 결과물의 보관 및 관리.							
연도별 실 적 (단위: 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업승계	10	21	50	78	62	76	54
	경 영	13	29	42	50	83	97	103
	계	23	50	92	128	145	173	157

2.2 선행연구

2.2.1 경영컨설팅과 경영성과

경영컨설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공적인 경영컨설팅(경영컨설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Zeira and Avedisian(1989)는 성공적 컨설팅의 결정요소로 수진기업의 특성, 컨설턴트와 수진기업의 적합도(fit), 수진기업이 처한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였다. 즉, 최고경영자의 헌신(commitment to change), 경영진내 지지자(evangelist)의 존재, 조직의 문화적·구조적 특성, 변화에 대한 태도 등이 수진기업의 특성으로서 성공적 컨설팅에 영향을 미치며, 컨설턴트는 수진기업의 가치, 목표, 변화 방법, 컨설턴트에게 요구하는 능력에 적합해야 하고, 기업이 처한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Jang and Lee(1998)과 Simon and Kumar(2001) 또한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 박춘래, 황서진, 이충섭(2011)^a은 컨설턴트의 역량을 직무역량 및 관리역량과 공통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조직의 특성을

2) A은행의 경영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형식을 (부록2. A은행의 경영컨설팅 만족도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경영자지원과 변화수용력으로 구분하여 컨설턴트의 역량이 컨설팅 성과(경영관리성과, 업무효율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컨설턴트의 역량은 구분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조직 특성의 조절효과도 조직특성의 구분에 따라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컨설턴트의 역량이 뛰어날수록 경영컨설팅성과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유사하게 배용섭과 안영진(2013)은 컨설턴트의 역량과 경영컨설팅 성과의 관계, 조절변수로서 컨설팅사의 특성과 수진기업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컨설턴트의 공통역량과 직무역량이 컨설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직의 특성(추진조직) 및 컨설팅사의 특성(전문성)의 조절효과를 미세하게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수진기업이 컨설팅사를 선정 시 컨설팅의 구체적 목표 여부, 컨설팅 프로세스의 적절성, 전문성, 컨설턴트 직무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컨설팅 수행 시에는 적합한 추진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김익성(2008)과 박춘래, 황성진, 이충섭(2011)b은 컨설팅 만족도 및 컨설팅활용도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장용삼과 곽홍주(2009) 등은 컨설팅의 도입, 수행, 사후에 걸친 컨설팅 관리(consulting management)가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연구하였다.

박춘래, 황성진, 이충섭(2011)b은 우선 경영관리성과와 업무효율성과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컨설팅활용도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부분적 매개효과를 업무효율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익성(2008)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이 컨설팅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컨설팅 특성, 컨설팅 만족도, 컨설팅 활용도가 모두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역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의 성과를 연구한 전기수(2009)는 설문조사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연구결과 경영컨설팅서비스품질 중 물적자원과 인적자원향상이 재무성과 등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행결과 만족도는 기업의 물적자원과 인적

자원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수행과정 만족도는 물적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인적능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물적자원의 향상은 재무성과, 고객만족, 학습과 성장 및 내부개선 등 모든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인적능력향상은 고객만족, 학습과 성장, 내부개선 등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재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최창호(2012)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 재무컨설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는데, 제조업에서는 재무구조 변수인 비유동자산구성비율과 경영성과 변수인 자기자본순이익율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전체기업에서는 부채비율 및 기업규모와 자기자본순이익율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 김현영(2013)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컨설팅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프로세스가 조직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경영컨설팅 프로세스인 준비, 진행, 결과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인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은행산업의 컨설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강성무와 류덕위(2012), 양용현과 유연우(2014) 등을 제외하고 매우 제한적이다. 강성무와 류덕위(2012)는 신탁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로 은행컨설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었다. 경영컨설팅에 대한 신뢰도는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고, 컨설팅지원과 활용의지는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컨설팅 수행능력은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컨설턴트의 전문성은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컨설팅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신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양용현과 유연우(2014)는 은행의 경영컨설팅과 수진기업의 성과를 연구한 선도적 연구로 수진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은행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장동인(2011) 등은 컨설턴트의 능력보다 수

진기업의 지지도가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이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는 컨설팅 기업인 은행뿐만 아니라 수진기업인 고객기업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은행컨설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영컨설팅 전후의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유동성, 수익성을 비교 연구한 이성환(2010)은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회전을 이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하고 다른 성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쿠폰제 경영컨설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선행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경영컨설팅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데 반하여, 경영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은행과 수진기업으로 하였다는 점과 일방적 효과가 아닌 양방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표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	본 연구
연구주제		컨설팅 일방향 성과에 대한 연구	컨설팅 양방향 성과에 대한 연구
연구대상 및 범위		일반컨설팅 경험 중소기업	은행컨설팅 경험 중소기업과 유사 수준의 비교대상업체
변수	독립 변수	일반경영컨설팅	은행경영컨설팅
	종속 변수	재무, 비재무성과	재무성과, 건전성(신용등급, 신용 평점), 기여도(수신평잔, 여신평잔)
연구방법		설문조사, 분산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실증자료분석, 회귀분석
연구결과		컨설팅 성과요인의 유의성 검증	은행경영컨설팅의 결과로 재무 성과와 건전성, 기여도가 제고 되는 결과를 확인

2.2.2 자본비용에 관한 연구

자본비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공시수준이나 공시품질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고, 정보비대칭의 감소는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Diamond and Verrecchia 1991, Botosan 1997, Sengupta 1998, Easley and O'Hara 2004, Francis et al 2005, 이상철 2011 등)

Diamond and Verrecchia(1991)는 기업의 공시가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주식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기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otosan(1997)은 기존의 연구들이 자기자본비용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본비용과 양의 관계에 있는 대용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증 결과가 명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치평가모형에 따른 자기자본비용을 측정하고 시장위험(시장베타)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익예측 재무분석가 수(analyst coverage)가 적은 기업들의 경우 공시품질과 자기자본비용간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이익예측 재무분석가 수가 많은 기업들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asley and O'Hara(2004)는 정보의 구조와 자기자본비용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사적정보가 많고 공적정보가 적은 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분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자기자본비용이 증가하며, 정보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키는 요소로써 Ashbaugh-Skaife et al(2006)은 기업지배구조를 이용하여 자본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기업지배구조가 강하면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강한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유도하며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Sengupta(1998)은 기존에 공시품질과 자기자본비용에 맞추어진 초점을 확장하여 공시품질과 타인자본비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재무분석가들이 기업의 공시관행을 평가한 지표를 공시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시품질이 타인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관련 연구들도 Sengupta(1998)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영우와 이세철 2006, 이상철 2011, 양동훈 2011 등).

고영우와 이세철(2006)은 자본조달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의 크기와 타인자본비용의 직접적인 관계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은행과 기업간 정보비대칭은 기업의 타인자본비용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훈(2011)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공시품을 측정하고 신용등급 및 이자비용 등을 이용하여 부채조달비용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양한 통제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유의하게 공시의 질과 부채조달비용의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이상철(2011)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항목 중 공시분야의 평가점수를 공시품질의 대용치로 하여 타인자본비용과 관계를 검증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이용한 순위로짓회귀 분석과 이자비용을 이용한 OLS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2.3 여신자산 건전성

2.2.3.1 여신자산 건전성 관련 법규 및 규정

우리나라의 은행은 은행법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경영지도기준은 은행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출채권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은 ‘건전성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제29조, 별표 3)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자체적으로 위의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동시에 자체실정에 맞는 건전성분류기준 및 신용평가모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2.3.2 A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 제 규정 등

A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분류규정 제6조(고객별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고객별 신용등급, 연체기간, 부도여부, 신용관리대상정보, 법적절차,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을 고려하여 고객별 건전성을 <표 4>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³⁾ 이는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상 부담하고 있는 신용리스크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의 조기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표 4> A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구 분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신용등급	AAA ~ B	B- ~ CCC	CC	C	D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부도여부 등					최종부도 발생 등

3) 신용등급의 자세한 분류기준은 부록(3. A은행 신용등급 정의)에서 제시하였다.

2.2.3.3 여신자산 건전성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건전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요구 이외에도 금융기관 자체적인 수익성 관리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산건전성의 여하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설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건전성에 대한 선행연구도 이런 실무적인 요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기준과 은행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실여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박정희(2010)는 담보대출이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담보대출비율과 여신자산 건전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자산건전성에 대한 정의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담보대출의 증가가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을 하락시킨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조한욱(2012)도 신용정보산업과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의 연구에서 신용정보산업 규모와 여신자산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의 관계를 연구하여 신용정보산업이 성장하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정보산업의 발달은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서원(2011)은 부동산 가격변동이 여신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동산가격변동률과 여신자산 건전성(고정이하비율)의 관계에서 부동산 가격상승률은 일반은행의 부실대출비율과 부(-)의 결과를 나타내어 이는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일반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여신자산 건전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경영컨설팅과 여신자산 건전성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찾지는 못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형태가 여신자산 건전성의 정의상의 신용등급에 기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여신을 연구하고 있는바, 본

연구도 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고정이하여신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의 확장개념의 전체 신용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이런 관점에서 여신자산 건전성 하위변수로 신용등급(신용평점)을 정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2.4 신용평가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용사회에서는 경제주체인 가게 및 기업, 국가 모두가 신용등급을 지니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신용평가란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신용등급이라는 잣대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김일환(2005)에 의하면 신용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이 특정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원리금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평가하여 이를 이해하기 쉬운 문자나 기호로 신용등급을 산출하여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1909년 미국의 경제기자인 존 무디(John Moody)가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출간한 ‘철도투자분석’에 기인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평가의 대상에는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기업의 신용평가는 기업주체에 대한 경영내용을 정확히 현황과 미래전망 등을 담고 있어야 하며, 신용평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평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평가업무가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은 1841년 미국의 루이스 탭텐(Louis Tappan)이 미국에 상업적인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한 것이 효시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1860년 헨리 푸어가 푸어스사라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고 1900년에는 존 무디가 무디스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다른 신용평가사의 설립 및 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전문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등장하여 정확하고 예측력이 강화된 분석기법, 모형 등이 개발되어 신용평가업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무디스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사 등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제공인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신용평가기관이 되면서 강자로 등장했다. 현재 이들 국제공인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신용평가회사들을 중심으로 세계신용평가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거래처에 대한 간단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신용평가 및 국가신용등급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은행 중심으로 실시하던 신용평가업무가 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 이전되어 신용평가업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감독당국과 정부주도하에 업무영역이 결정되는 과정 등 정부의 지나친 보호와 규제로 자생력이 상당히 결여되었으나, 최근에는 규모면에서 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가 국내 신용평가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인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 피치사 등과 전략적 업무 제휴 및 자본참여를 통하여 국제적인 평가기법을 도입하는 등 신용평가업무에 도약을 꾀하고 있다.

신용등급 체제는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장기신용등급과 단기신용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주로 국제 3대 공인신용평가기관의 등급표시방법에 준하여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장기신용등급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은 각자 여신정책 및 포트폴리오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등급의 체계를 세분화 하기도 한다. 은행에 대하여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을 설정 운영하게 하는 이유는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전성 및 신뢰도를 제고시키려는 목적과 감독당국의 다양한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은행이 타 신용평가기간의 평가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기초하여 채권자인 기업의 신뢰도를

실정에 맞게 객관적이고 적합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에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과 채무상환의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자산건전성분류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신한도관리, 여신의사결정, 신용위험관리, 자산포트폴리오관리, 대손충당금설정, 이자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 관련한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손판도(2009)는 기업의 자본구조의사결정에 신용등급이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신용등급 변동에 직면한 기업은 연간 약 7% 정도의 부채를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덜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신용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에 직면한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자기 자본 발행을 선호함을 연구하였다. 김요한(2013)은 기업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당기 신용등급과 차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전홍민과 차승민(2013)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용등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서 신용평가기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동민(2013)은 신용등급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신용평가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를 자본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정채중과 신범철(2012)은 신용등급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 신용등급 상승이 전체기업에 평균적으로 R&D 투자와 생산설비 등 자본의 확대를 통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영컨설팅과 신용등급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유

추하면 경영컨설팅의 성과로 기업가치가 향상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신용 등급이 향상되며, 이는 은행의 여신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방법

3.1.1 연구모형

다음은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와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 은행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제변수 및 가변수를 포함한 다변량회귀모형이다.

[연구 모형]

$$\begin{aligned} INDEX = & \alpha_0 + \beta_1 Con + \beta_2 Post + \beta_3 Con \times Post \\ & + \beta_4 SIZE + \beta_5 LEV + \beta_6 ROA + \beta_7 CAL \\ & + \beta_8 CASH + \beta_9 MKT + \sum IND + \sum YR + \epsilon \end{aligned}$$

INDEX⁴⁾: 경영성과, 여신자산 건전성, 은행 기여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수

경영성과: 안정성지표(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수익성지표(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이자보상배율¹, 이자보상배율², 자기자본순이익률)⁵⁾

성장성지표(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활동성지표(총자본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4) 본 연구의 경영성과 및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 은행 기여도의 측정방법은 다양한 변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록(1. 변수의 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동일한 재무비율 분류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치를 사용한 이유는 재무비율의 재량적 선택에 따른 분석결과의 편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5)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은 안정성 지표로 사용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은행과 은행의 고객기업을 분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자보상배율이 이자를 보상하고 초과적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성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의미상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익성으로 분류하였다.

매입채무회전율, 영업자산회전율)

생산성지표(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은행 여신자산 건전성: 신용평점⁶⁾, 신용등급⁷⁾

은행 기여도: 최근 3개월 예금(수신평잔)과 대출(여신평잔)의 평잔⁸⁾

Con : A은행으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을 갖는 더미변수.

Post : A은행으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이면 1, 아니면 0을 갖는 더미변수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SIZE : LN(총자산)

LEV : 부채/자기자본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은 표본에 포함된 다양한 기업들의 특성을 통제하고 은행 경영컨설팅 제공 전후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은행 여신자산 건전성 및 은행 기여도의 차이($\beta_2 + \beta_3$)와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경영성과, 은행 여신자산 건전성 및 은행 기여도 차이($\beta_1 + \beta_3$)를 비교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만약 $\beta_2 + \beta_3$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면, 수진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후 경영성과, 은행 여신자산 건전성 및 은행 기여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만약 $\beta_1 + \beta_3$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

6) A은행의 신용평점은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구체적 설명은 피하였다. 이론적으로 0점에서 100점을 범위로 하며 신용정책 등을 감안하여 조절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이분산성 통제를 위하여 A은행의 평가기준에 의한 고객기업의 신용평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이용하였다.

7) 신용등급(Credit) 변수는 A은행의 고객기업 신용등급에 대응하여 수치화한 값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최상위 등급인 “AA”인 경우 신용등급 변수는 18점을 부여하고 최하위 등급인 “C”인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1. 변수의 정의)에 추가하였다.

8) 은행의 기여도는 A은행의 신용평가에서 사용되는 항목인 최근 3개월간 수신평잔과 여신평잔을 이용하였다.

다면 수진기업이 은행컨설팅을 받은 후에 통제기업인 미수진기업보다 경영성과, 은행 여신자산 건전성 및 은행 기여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나타낸다.

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는 기업규모 변수(SIZE), 부채비율(LEV), 기업성과(ROA), 유동비율(CAL), 총자산대비현금비율(CASH)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외감여부의 특성, 산업특성, 연도효과 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3.1.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2.1 경영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영컨설팅의 결과인 성과 측면에서의 경영성과 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경영컨설팅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는 박춘래, 황서진, 이충섭(2011), 전기수(2009), 장용삼, 곽홍주(2009) 등 주로 성공적인 경영컨설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영성과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혼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무성과를 경영성과로 연구한 최창호(2012)는 중소기업 재무컨설팅 활용을 위한 재무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성과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변수로 연구하였다. 이진열(2013)도 디자인경영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하위변수로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 순이익증가율, 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재무성과에 대하여 매출액 등 재무제표의 외형이나, 재무분석 비율 등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수환(2005)의 중소기업 소유구조가 경영성과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본 경영성과 변수인 성장성,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생산성의 재무비율분석 변수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A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재무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생산성의 각 재무비율을 경영성과로 정의하였다.

3.1.2.2 기여도

1) 기여도 정의

기여 및 기여도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결과 기여 및 기여도에 대한 의미는 보통명사로 사전적 의미인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또는 하는 정도’로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중요한 본질기능인 자금중개기능에서 착안하였다. “금융중개란 금융기관이 예금 유치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자 특히 기업에게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에서의 중추적 기능을 말한다. 금융중개기관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매개체이며, 은행은 핵심적인 금융중개기관의 하나이다”라고 조봉환(2008)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2조에 의하면 “은행업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성환(2005)도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을 예금과 대출거래 상황별로 나누어 상황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이 재구매 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은행의 가장 근원적 기능인 예금과 대출을 고객의 은행에 대한 기여도로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재연(2001)의 ‘고객의 은행수익성 기여도 분석 및 이용’ 연구와 같이 고객의 은행에 대한 수익성 기여도를 살펴보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본질 기능인 수신과 여신을 기여도로 인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수신평잔(3개월), 여신평잔(3개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여도로 예금과 대출을 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위변수인 수신평잔 및 여신평잔에 대해서도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홍성수(2011)는 전북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품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일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새롭게 사회적 책임품질을 추가시켜 4차원 품질차원이 마케팅 및 재무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재무성과의 하위변수로 은행업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예금실적, 대출금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 수익증권 이용실적을 사용하였다. 특히 거래실적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설문에 최근 3개월의 평잔을 적용하였다.

영업현장에서도 고객의 거래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3개월 평잔 실적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대고객 선정, 우등기업 선정, 자동대출 한도산정, 등 대부분 거래실적 파악에 수신평잔 3개월, 여신평잔 3개월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잔액개념보다는 임의적이며 일시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고객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잔의 개념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은 3개월의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1개월의 경우 기간에 있어 단기적인 사유로 인위적인 거래실적 조작이 수월하고, 6개월의 경우 장기적인 사유로 인해 신규고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3개월의 평잔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경영환경에 따른 의사결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여도에 따른 하위변수로 수신평잔과 여신평잔에 대하여 이와 같은 연구적 배경과 실무에서의 영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A은행의 신용평가시 거래업체의 거래실적을 반영하는 수신평잔(3개월)과 여신평잔(3개월)의 개념을 하위변수로 정의하였다.

3.1.2.3 여신자산 건전성

1) 여신자산 건전성의 정의

은행에 대한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등에서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평가 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최저기준에 따른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및 그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내규로 정하고 있다. 자산건전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박정희(2011), 조한욱(2012), 서원(2011)이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분류단계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여신자산을 ‘고정이하여신’으로 정의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은행의 여신자산에서 가장 많은 분류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용평점을 하위변수로 정의하였다.

2) 신용등급

신용등급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전홍민(2013), 원상희(2013), 정채중(2012), 신민식(2014) 등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외부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신용평가 등급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진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 등급을 고려하고자 한다.

금융당국의 지도기준에 의거 각 은행의 자산건전성분류규정은 금융감독원의 최저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은행의 자산건전성분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규정 제6조에 고객별 건전성 분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고객별 신용등급, 연체기간, 부도여부, 신용관리대상정보, 법적절차,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적립률 등을 고려하여 고객별 건전성을 분류한다. 이에 따라서, 신용등급별로 정상(AAA~B), 요주의(B-~CCC), 고정(CC), 회수의문(C), 추정손실(D)로 구분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신용평점)을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신용평점

신용평가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신용등급이 산출된다. 은행은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평가의 균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스템에 의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검증을 전제하고 있다.

신용평가는 시스템에 재무적/비재무적 고려요인을 반영하면 이는 최종적으로 신용평점으로 산출된다. 산출된 신용평점은 신용등급의 구간별 신용평점에 매칭되어 최종적으로 신용등급이 산출되는 프로세스이다. 신용등급의 구간별 신용평점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신용등급의 최저등급과 최고등급을 0에서 100점까지를 각 은행별 여신정책 및 보유 여신자산의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매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용등급은 신용평점에 의해 전적으로 산출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등급이 12단계이며,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어 변별력이 크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등급과 함께 신용평점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3.1.3 Matching Sample Design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양용현과 유연우, 2014)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연구모형에 A은행의 고객인 미수진기업을 통제기업으로 포함하여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진기업의 총자산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비슷한 미수진기업을 수진기업의 통제기업으로 매칭하여 분석하였다.⁹⁾ 매칭 표본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은행 경영컨설팅 제공 전후 수진기업의 경영성과 및 은행 기여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경영성과 및 은행 기여도 차이도 비교할 수 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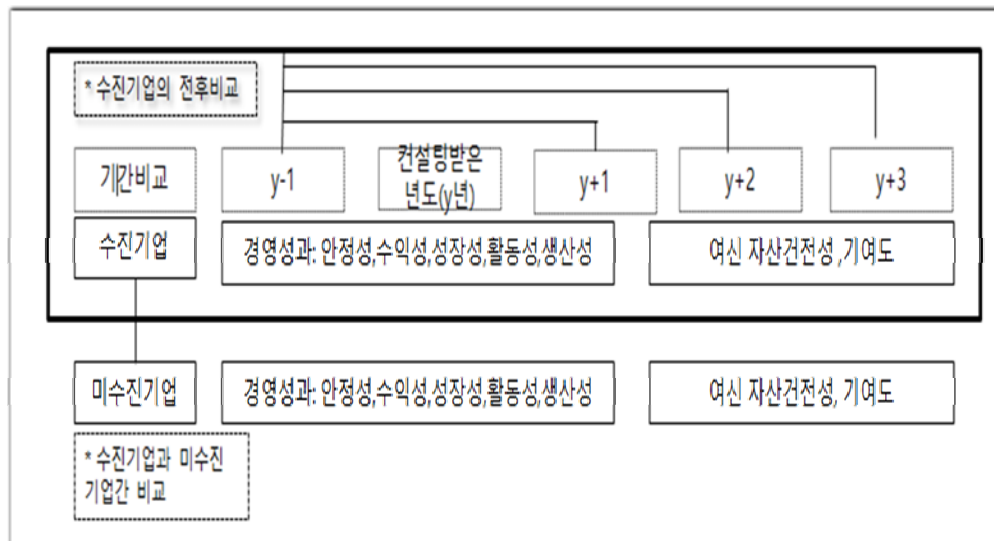
다음 <그림 1>은 연구모형에서 검증하고자 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고, <그림 2>는 연구모형에서 사용되는 각 가변수에 해당되는 표본에 대한 연도별 분포를 설명한 도표이다. Con이 1의 값을 갖는 경우는 수진기업을 나타내며,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전체의 연구기간에 해당된다. Post가 1의 값을 갖는 경우 수진기업이 컨설팅을 받은 이후의 기간을 나타내며 컨설팅이 종료된 2009년도 이후인 2010년부터 2012년이 해당된다. 수진기업이 컨설팅을 받은 연도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서 대응된 통제 변수도 동일한 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부여하였다. Con×Post가 1인 경우는 수진기업이면서 컨설팅을 받은 이후 기간을 나타낸다.

9) 컨설팅 수행 전의 수진기업과 대응표본의 규모차이는 5%이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하지만 한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분석기업과 통제기업의 규모에 의한 매칭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컨설팅 수행 후 분석기업과 통제기업의 규모차이는 1% 수준이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컨설팅 수행 후에 차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진기업의 컨설팅 전후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를 부록(4. 컨설팅 수진 전후의 차이분석)에 제시하였다.

컨설팅 제공 전				컨설팅 제공 후			
VAR	통제기업	수진기업	t-value	VAR	통제기업	수진기업	t-value
SIZE	16.352	16.4839	1.85*	SIZE	16.5167	16.751	3.00***

10) 조금 더 정교한 통제기업대응을 위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기법을 고려하였으나, 은행컨설팅 데이터의 특성상 표본이 부족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한 통제의 이득보다 표본의 감소로 인한 손실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자산규모를 이용한 대응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차이분석의 개요



<그림 2> 수진기업 및 미수진기업의 구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Con					
컨설팅					
통제					
Post					
컨설팅					
통제					
Con*Post					
컨설팅					
통제					

3.2 가설설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컨설팅은 전반적으로 수진기업의 경영성과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컨설턴트의 역량이 수진기업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eira and Avedisian 1989, 박춘래 외 2011a, 배용섭과 안용진 2013 등)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로 박춘래, 황서진, 이충섭(2011)a은 컨설턴트의 역량을 직무역량 및 관리역량과 공통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조직의 특성을 경영자지원과 변화수용력으로 구분하여 컨설턴트의 역량이 컨설팅 성과(경영관리성과, 업무효율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컨설턴트의 역량의 구분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조직의 특성의 조절효과도 조직특성의 구분에 따라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컨설턴트의 역량이 뛰어날수록 경영컨설팅 성과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유사하게 배용섭과 안영진(2013)은 컨설턴트의 역량과 경영컨설팅 성과의 관계 조절변수로서 컨설팅사의 특성과 수진기업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컨설턴트의 공통역량과 직무역량이 컨설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직의 특성(추진조직) 및 컨설팅사의 특성(전문성)의 조절효과를 미세하게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컨설팅역량 부족이 경영컨설팅을 통한 수진기업의 성과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은행산업의 컨설팅 역사와 데이터가 부족한 점, 컨설팅 제공과 효과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컨설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대부분의 은행이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의 품질이 낮을 수 있다는 인식 등 다양한 이유로 은행산업의 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컨설턴트의 역량뿐만 아니라 컨설턴트와 수진기업의 적합도 또한 컨설팅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진기업이 처한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였다.(Zeira and

Avedisian 1989) 나아가 장동인 등(2011)은 수진기업의 지지도가 컨설팅 서비스 및 결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컨설턴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은행과 수진기업의 관계는 단순한 컨설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넘어 수진기업의 자산이 컨설턴트의 여신자산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상석(2009)의 연구와 양용현과 유연우(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회계와 재무분야의 경영컨설팅 성과가 기업의 궁극적인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은행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은행의 경영컨설팅에 따른 수진기업의 경영성과는 관련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¹¹⁾

가설 1: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안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활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가설의 명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가설1의 일부 보조가설에 대하여는 귀무가설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가설의 방향을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모두 정(+)의 영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효과가 은행과 수진기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설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가설 1-5: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Altman(1968)와 Beaver(1966)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재무비율들을 이용한 모형으로 파산이나 신용등급을 예측하고, 기업의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김진선과 최영문 2002, 이상철 2011)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의 직접적 관계를 나타내며,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은행의 대출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자 대출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자산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배경이 있다. 만약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진기업 경영자의 경영활동이 더욱 건전해지고 경영성과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은행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진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은행과 기업 간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Diamond and Verrecchia(1991)에 따르면 기업의 신용등급은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판단은 과거의 정보 뿐만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정보¹²⁾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기업의 다양한 재무비율과 더불어 신용평가자가 요구하는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영과 진동민(2000)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신용등급 평가요소로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 특히 경영진의 경영관리능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피평가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은 미래 기대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기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파산위험에 대하여 필요이상 높은 확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Mansi et al 2007).

12) Diamond and Verrecchia (1991)가 설명하는 추가적 정보란 기업이 미래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스케줄에 맞추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역으로, 은행과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 하에서 타인자본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이 타인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신호효과로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유인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은행과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비용에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공시수준이나 공시품질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고, 정보비대칭의 감소는 자본비용을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Diamond and Verrecchia 1991, Botosan 1997, Sengupta 1998, Easley and O'Hara 2004, 고영우와 이세철 2006, 이상철 2011 등) 이는 다른 상황이 모두 동일하다면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과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수진기업의 신용이 향상되고 동시에 여신자산의 건전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은행의 여신자산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여신자산의 신용등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여신자산의 신용평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경영컨설팅 대상을 선정할 때 고객관계 개선 및 거래기반 확대 가능성, 수익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기업의 경영성과만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하여 은행 기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단지 한 쪽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설정한 가설에 따라 만약 기업의 경영성과가 증가하고 은행의 여신자산이 건전화 된다면, 감소한 자본비용으로 인하여 은행과 기업의 거래

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은행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¹³⁾

가설 3: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 기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 수신평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 여신평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선 가설 1이 수진기업의 측면에서 경영컨설팅의 효과라고 한다면 가설 2와 3은 은행의 측면에서 경영컨설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가설을 모두 검증하는 이유는 경영컨설팅이 단지 수진기업이나 은행 한 측면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은행과 수진기업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상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¹⁴⁾ 만약 은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수진기업의 경영성과만 증가한다면 은행이 경영컨설팅 결과를 은행서비스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13) 가설 3도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잠재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은행의 기여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14) 김선빈 외(2009)의 상생의 경제학(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상생이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 자본, 정규직 등 선도부문과 중소기업, 노동, 비정규직 등 상대적 취약부분 사이에 성장의 상호의존성이 증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생의 개념은 대기업, 자본, 정규직 등 선도부문에서 중소기업, 노동, 비정규직 등 취약부분으로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기계적 평균화와 다르게 경제 주체 간 상호작용이 서로 발전을 “견인-추동” 하는 관계를 말한다.

또한, 상생의 메커니즘은 “시장경제 활성화 메커니즘”과 “시장참여 촉진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데, 시장경제 활성화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한다는 점,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킨다는 점, 시장참여자들에게 양립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의 의미를 같이하고, 시장참여 촉진 메커니즘 측면에서 영세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기타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의 의미와 일치한다.

관련 연구로는 정경효(2009), 정현민(2009) 등이 있다.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는 증가시키지 못하고 은행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하는 피상적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설을 모두 검증함으로써 은행 경영컨설팅에 대한 실태와 미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3 표본선정

본 연구는 A은행의 거래기업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업체 선정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A은행으로부터 경영컨설팅을 제공 받은 실적이 있는 278개 기업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영업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영업점에서 거래기업에 대한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본부에서는 지원인력의 부족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추가적으로 1차 선정된 표본을 기준으로 A은행에서 매년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이력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평가의 자료의 완결성이 확인된 234개 기업을 선별하였다. 수진기업의 컨설팅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진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전후비교 외에 추가적으로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기업에 대응되는 통제기업을 선정하였다. 통제기업은 표본기업에 총자산과 매출액이 가장 근접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총자산과 매출액은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총괄 계정과목으로 재산상황과 영업상황을 수치로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감안하였다. 표본기업과 동일하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자료가 확보된 기업을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표본기업과 통제기업이 동일하게 자료의 완결성이 확보된 기업을 선정하여 표본기업과 통제기업 각각 119개 업체를 확보하였다.

IV. 실증분석

4.1 기술통계량

<표 5>는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변수와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재무변수들은 다변량회귀분석에 대한 이상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하위 3%의 이상치를 윈저화(Winzorization)하였다.¹⁵⁾

우선 은행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기업인 수진기업(Con)은 전체 표본의 42%를 차지하고 미수진기업은 58%를 차지하고 있다. 수진기업이 은행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 수진기업(23%)과 미수진기업의 관측치 수는 60.6%로 전체 표본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인 부채비율은 평균 1.847로 전체 표본기업이 평균적으로 자기자본보다 부채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의 평균은 매출액순이익률 0.022,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과 매출액경상이익률 0.027,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본순이익률 0.038로 나타났다.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의 평균은 0.019, 이자보상배율1은 평균 0.074, 이자보상배율2는 평균 0.072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모두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각각 0.122, 0.165, 0.136, 0.101).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은 전체샘플 평균 약 1.5회 회전하고, 영업자산은 4.6회 회전하며,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각각 10.2회와 22.4회 회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윈저화(winsorization) 전 raw 데이터를 (부록. 극단치 제거 전 데이터의 기술통계량)에 제시하였다.

<표 5>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Variables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Con	0.420	0.494	0.000	0.000	0.000	1.000	1.000
Post	0.606	0.489	0.000	0.000	1.000	1.000	1.000
Con×Post	0.230	0.421	0.000	0.000	0.000	0.000	1.000
부채비율	1.847	1.680	0.005	0.699	1.475	2.528	7.696
차입금의존도	0.343	0.213	0.001	0.179	0.360	0.504	0.753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0.331	0.212	0.000	0.170	0.344	0.497	0.736
매출액영업이익률	0.038	0.055	-0.119	0.008	0.034	0.065	0.167
매출액경상성이익률	0.027	0.065	-0.186	0.003	0.020	0.052	0.175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0.027	0.064	-0.186	0.003	0.020	0.053	0.175
매출액순이익률	0.022	0.060	-0.190	0.002	0.018	0.047	0.151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0.019	0.017	0.000	0.006	0.014	0.027	0.066
총자본순이익율	0.038	0.067	-0.134	0.003	0.029	0.069	0.204
이자보상배율1	0.074	0.183	-0.065	0.004	0.019	0.053	0.890
이자보상배율2	0.072	0.102	-0.024	0.018	0.039	0.081	0.472
자기자본순이익율	0.069	0.297	-1.146	0.007	0.080	0.186	0.648
총자산증가율	0.122	0.217	-0.201	-0.001	0.064	0.204	0.790
유형자산증가율	0.165	0.500	-0.427	-0.050	0.001	0.164	2.131
자기자본증가율	0.136	0.364	-0.871	0.003	0.073	0.231	1.180
매출액증가율	0.101	0.278	-0.400	-0.042	0.047	0.205	0.931
총자본회전율	0.014	0.010	0.000	0.008	0.013	0.019	0.042
유형자산회전율	0.265	0.703	0.000	0.020	0.041	0.117	3.425
매출채권회전율	0.102	0.132	0.000	0.037	0.063	0.107	0.650
매입채무회전율	0.224	0.403	0.000	0.054	0.104	0.196	2.125
영업자산회전율	0.046	0.040	0.000	0.023	0.037	0.057	0.181
총자본투자효율	0.258	0.173	0.001	0.151	0.241	0.353	0.713
부가가치율	0.193	0.140	0.001	0.087	0.172	0.276	0.544
신용등급	9.877	2.469	3.000	9.000	10.000	11.000	15.000
신용평점	4.240	0.159	3.856	4.140	4.235	4.345	4.538
수신평간	11.003	3.513	2.412	10.409	12.129	13.317	14.872
여신평간	12.634	3.768	2.600	12.524	13.916	14.843	15.899
SIZE	16.525	0.830	15.009	15.932	16.450	17.125	18.287
LEV	0.615	0.170	0.253	0.496	0.636	0.731	0.954
ROA	0.037	0.062	-0.125	0.004	0.029	0.070	0.186
CAL	1.270	0.658	0.401	0.797	1.118	1.562	3.129
CASH	0.045	0.054	0.000	0.007	0.024	0.067	0.214

Con :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SIZE : $\log(\text{총자산})$, LEV : 총부채/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 ΣIND , ΣYEAR 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기타변수의 정의는 부록(1. 변수의 정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표본의 평균적 유동비율은 1.27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단기지급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기업규모(SIZE)는 평균 16.525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평균에 못 미쳐 표본구성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다음의 <표 6>은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6>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VAR	Post	Con×Post	SIZE	LEV	ROA	CAL	CASH
Con	-0.102 ***	0.642 ***	0.123 ***	0.012	-0.063 **	0.010	-0.083 ***
Post		0.441 ***	0.091 ***	-0.095 ***	0.141 ***	0.047	-0.041
Con×Post			0.149 ***	-0.057 *	0.023	0.047	-0.070 **
Size				-0.010	-0.055 *	-0.144 ***	-0.132 ***
LEV					-0.361 ***	-0.680 ***	-0.226 ***
ROA						0.263 ***	0.227 ***
CAL							0.276 ***

은행의 경영컨설팅을 받는 수진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유의한 양(+)의 관계(0.123)를 나타내고 있고,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 양(+)의 상관관계는 더욱 증가하였다(0.149). 또한 수진기업과 총자산이익률(ROA) 및 총자산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비율(CASH)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ROA: -0.063, CASH: -0.083)를 나타내고 있고 경영컨설팅을 받은 후 총자산순이익률(ROA)는 음(-)의 관계가 사라졌다. 반면, 수진기업과 총자산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비율(CASH)은 음의 관계와 유의성이 약

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LEV는 경영컨설팅 이후 유의한 음의 관계(-0.057)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나타난 수진기업의 총자산 크기의 증가에 기인할 수도 있고 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특성을 통제한 후 수진기업의 안정성 및 은행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다변량회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진기업의 컨설팅 이후 수진기업과 통제기업을 모두 나타내는 Post 변수는 기업규모인 SIZE 변수와 유의한 양의 값(0.091)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수진기업과 기업규모의 관계(0.123) 보다 작은 크기를 보인다. 수진기업이 은행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 Size 변수와의 상관관계(0.149)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통제기업으로 사용된 기업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ost 기업들과 부채비율은 음의 상관관계(-0.095)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 수진기업들의 부채비율과의 관계(-0.057)보다 더 유의하고 큰 음의 값을 보인다. 이는 Post 기업들 중 미수진기업의 부채비율도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반면, Post 기업들의 총자산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비율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 통제변수들과 주요 설명변수들이 1~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제외하면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변량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다음은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회귀분석 결과이다. 각각의 재무비율에 대한 통제변수로는 기업의 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 순이익률(ROA), 유동비율(CAL),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을 포함하였으며, 시장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속시장을 구분하는

외감여부더미변수와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는 제조업여부더미변수, 연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연도더미를 모든 모형에 포함하였다.

4.3.1 경영성과

<표 7-1>부터 <표 7-3>은 [연구 가설1]의 [보조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영성과의 대용변수인 안정성지표로서 부채비율, 차입금의 존도,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에는 기업규모, 수익률, 자산의 구조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4.3.1.1 안정성지표

1) 부채비율

먼저 <표 7-1>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부채비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25.8%,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28.3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통제기업인 미수진기업보다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에 대하여 경영컨설팅을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부채비율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났다. 즉, 수진기업과 통제기업인 미수진기업은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 동안에 부채비율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다.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안정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Con×Post 변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였다. 오히려 은행컨설팅 제공 후 수진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부채자본조달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남는다면 부채비율의 증가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률(ROA), 유동비율(CAL)의 증가는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유동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 부채비율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부채비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부채비율 Coeff.(p-value)	
Intercept	8.231	(<.0001)***
Con	-0.441	(0.0006)***
Post	0.119	(0.6008)
Con×Post	0.39	(0.0389)**
SIZE	-0.291	(0.0005)***
LEV		
ROA	-3.946	(<.0001)***
CAL	-1.018	(<.0001)***
CASH	-0.918	(0.3084)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258	
F-Value	28.32***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2) 차입금의존도

<표 7-2>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차입금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약 33%,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39.8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차입금의존도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차입금의존도 Coeff.(p-value)	
Intercept	0.488	(0.0028)***
Con	-0.097	(<.0001)***
Post	-0.017	(0.538)
Con×Post	0.064	(0.0046)***
SIZE	0.007	(0.4656)
LEV		
ROA	-0.543	(<.0001)***
CAL	-0.124	(<.0001)***
CASH	-0.13	(0.2303)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330	
F-Value	39.82***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실증분석 결과,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통제기업인 미수진기업보다 차입금의존도가 평균적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컨

설팅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에 대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차입금의 준도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수진기업과 통제기업들인 미수진기업은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 동안에 안정성비율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안정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Con×Post 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여 오히려 은행컨설팅 제공 후 수진기업의 차입금의준도가 증가하여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차입금의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앞선 부채비율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부채조달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남는다면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총자산순이익률(ROA), 유동비율(CAL)의 증가는 차입금의준도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유동비율이 증가할수록 차입금의준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의 규모(SIZE)와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은 차입금의준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금융기관차입금의준도

<표 7-3>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금융기관차입금의준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약 32.5%,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38.9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통제기업인 미수진기업보다 금융기관차입금의준도가 평균적으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컨설팅 제공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에 대하여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금융기관차입금의준도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즉, 수진기업의 통제기업들인 미수진기업은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 동안에 안

정성비율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Coeff.(p-value)	
Intercept	0.403	(0.013)**
Con	-0.099	(<.0001)***
Post	-0.021	(0.4442)
Con×Post	0.065	(0.0044)***
SIZE	0.011	(0.2713)
LEV		
ROA	-0.527	(<.0001)***
CAL	-0.118	(<.0001)***
CASH	-0.115	(0.2904)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325	
F-Value	38.94***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계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안정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Con×Post 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여 오히려 은행 컨설팅 제공 후 수진기업의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여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앞선 부채비율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부채조달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남는다면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 총자산순이익률(ROA), 유동비율(CAL)의 증가는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와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유동비율이 증가할수록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의 규모(SIZE)와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은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4.3.1.2 수익성지표

<표 8-1>부터 <표 8-4>는 [연구 가설1]의 [보조 가설 1-2]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영성과의 대용변수인 수익성지표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총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1, 이자보상배율2,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에는 기업규모, 수익률, 자산의 구조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1) 매출액영업이익률

<표8-1>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55.8%,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93.4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은 사전적 매출액영업이익률 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에서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매출액영업이익률 Coeff.(p-value)	
Intercept	-0.067	(0.1432)
Con	0.001	(0.8976)
Post	-0.009	(0.2177)
Con×Post	0.001	(0.8272)
SIZE	0.005	(0.0392)**
LEV	0.003	(0.817)
ROA	0.49	(<.0001)***
CAL	-0.001	(0.7392)
CASH	0.04	(0.1507)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323	
F-Value	35.85***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2) 매출액경상이익률

<표 8-2>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54.9%,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89.86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경상이익률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매출액경상이익률 Coeff.(p-value)	
Intercept	-0.038	(0.3852)
Con	0.004	(0.3478)
Post	-0.006	(0.3603)
Con×Post	0.000	(0.9738)
SIZE	0.005	(0.0643)*
LEV	-0.041	(0.0003)***
ROA	0.721	(<.0001)***
CAL	-0.004	(0.1467)
CASH	0.039	(0.1455)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549	
F-Value	89.86***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매출액경상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은 매출액경상이익률 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

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에서도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는 매출액경상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0%,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채비율(LEV)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의 증가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다음의 <표 8-3>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55.4%,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91.66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제공과 사전적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에서도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는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5%,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채비율(LEV)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성

과가 좋을수록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의 증가는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Coeff.(p-value)	
Intercept	-0.053	(0.2179)
Con	0.003	(0.3664)
Post	-0.004	(0.5626)
Con×Post	-0.001	(0.8146)
SIZE	0.005	(0.0345)**
LEV	-0.037	(0.0013)***
ROA	0.725	(<.0001)***
CAL	-0.004	(0.1995)
CASH	0.038	(0.1515)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554	
F-Value	91.66***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4) 매출액순이익률

<표 8-4>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55.8%,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93.4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순이익률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매출액순이익률 Coeff.(p-value)	
Intercept	-0.061	(0.1279)
Con	0.003	(0.4273)
Post	-0.003	(0.6544)
Con×Post	-0.001	(0.9162)
SIZE	0.005	(0.0227)**
LEV	-0.029	(0.0061)***
ROA	0.692	(<.0001)***
CAL	-0.005	(0.0666)*
CASH	0.026	(0.2892)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558	
F-Value	93.44***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매출액순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 제공과 사전적 매출액순이익률의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에서도 매출액순이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결

과를 나타냈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는 매출액순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5%,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채비율(LEV)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매출액순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의 증가는 매출액순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표 8-5>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결과,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28.38%,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27.2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을 제공받는 기업은 컨설팅을 제공받지 않는 미수진기업보다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이 양호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에서도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컨설팅을 받은 수진기업은 미수진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은 이후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컨설팅 수진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5>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Coeff.(p-value)	
Intercept	-0.041	(0.005)***
Con	-0.005	(<.0001)***
Post	0.000	(0.9793)
Con×Post	0.003	(0.1549)
SIZE	0.004	(<.0001)***
LEV	0.023	(<.0001)***
ROA	-0.053	(<.0001)***
CAL	-0.003	(0.0006)***
CASH	-0.024	(0.0077)***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2724	
F-Value	28.38***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의 증가는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총자산순이익률(ROA), 유동비율(CAL), 현금성자산(CASH)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순이익, 유동비율, 현금성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금융비용대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총자본순이익률

<표 8-6>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총자본순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8-6>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총자본순이익률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총자본순이익률 Coeff.(p-value)	
Intercept	-0.018	(0.6267)
Con	0.002	(0.4688)
Post	0.002	(0.7926)
Con×Post	0.000	(0.9725)
SIZE	0.002	(0.3877)
LEV	-0.01	(0.2901)
ROA	0.848	(<.0001)***
CAL	0.002	(0.5521)
CASH	0.061	(0.0087)***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686	
F-Value	161.04***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66.6%,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161.0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총자본순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 제공과 총자본순이익률의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에서도 총자본순이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총자산순이익률(ROA),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의 증가는 총자본순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가 좋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보유액이 높을 수록 총자본순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이자보상배율1

<표 8-7>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이자보상배율1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18.27%,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17.35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이자보상배율1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 제공과 이자보상배율1의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에서도 이자보상배율1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이자보상배율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부채비율(LEV)는 부(-)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가 좋은 경우 이자보상배율1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의 증가는 이자보상배율1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7>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이자보상배율1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이자보상배율1 Coeff.(p-value)	
Intercept	0.355	(0.0332)**
Con	-0.016	(0.2654)
Post	-0.038	(0.1498)
Con×Post	0.025	(0.2392)
SIZE	-0.01	(0.2975)
LEV	-0.188	(<.0001)***
ROA	0.418	(<.0001)***
CAL	0.002	(0.8354)
CASH	0.116	(0.2602)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1827	
F-Value	17.35***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8) 이자보상배율2

<표 8-8>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이자보상배율2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29.13%,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31.06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이자보상배율2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이자보상배율2 Coeff.(p-value)	
Intercept	0.402	(<.0001)***
Con	-0.012	(0.1268)
Post	-0.031	(0.0218)**
Con×Post	0.030	(0.0075)***
SIZE	-0.015	(0.0024)***
LEV	-0.142	(<.0001)***
ROA	0.48	(<.0001)***
CAL	0.011	(0.071)*
CASH	0.179	(0.0009)***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2913	
F-Value	31.06***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이자보상배율2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 제공과 이자보상배율2의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에서도 이자보상배율2가 5% 수준에서 부(-)의 값으로 나타나 은행컨설팅 제공 이후 모든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EBITDA는 영업이익에서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등을 차감하기 전 이익인 현금성영업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유형자산이나 퇴직급여 등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할 부담이 큰 기업들이 추가적 자본조달을 위해서 은행의 경영컨설팅을 제공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증가한 비현금성 비용인식이 수진기업의 성과향상을 가리는 효과(Masking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의 증가는 이자보상배율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보상배율2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총자산순이익률(ROA),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순이익, 현금성자산의 증가는 이자보상배율2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자기자본순이익률

<표 8-9>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41.65%,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53.21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 제공받는 수진기업이 미수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고,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수익성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변수 Con×Post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나, 컨설팅을 받은 이후의 영향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부채비율(LEV)와 유동비율(CAL)은 부(-)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증가하지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자기자본순이익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9>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자기자본순이익률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자기자본순이익률 Coeff.(p-value)	
Intercept	0.035	(0.8795)
Con	0.033	(0.0994)*
Post	0.011	(0.752)
Con×Post	-0.001	(0.9677)
SIZE	0.009	(0.5189)
LEV	-0.224	(0.0002)***
ROA	2.849	(<.0001)***
CAL	-0.045	(0.0038)***
CASH	0.228	(0.1074)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4165	
F-Value	53.21***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4.3.1.3 성장성지표

<표 9-1>부터 <표 9-4>는 [연구 가설1]의 [보조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영성과의 대용변수인 성장성지표로서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에는 기업규모, 수익률, 자산의 구조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1) 총자산증가율

<표 9-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총자산증가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igma MKT + \Sigma IND + \Sigma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총자산증가율 Coeff.(p-value)	
Intercept	-1.475	(<.0001)***
Con	-0.031	(0.0879)*
Post	-0.054	(0.021)**
Con×Post	0.03	(0.2589)
SIZE	0.095	(<.0001)***
LEV	0.176	(0.0012)***
ROA	0.901	(<.0001)***
CAL	-0.006	(0.6808)
CASH	0.205	(0.1072)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112	
F-Value	10.90***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위의 <표 9-1>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총자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11.2%,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10.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총자산증가율과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행의 컨설팅 제공을 받는 기업은 총자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총자산증가율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기업인 미수진기업이 자산항목에서 유의한 부(-)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나, 컨설팅을 받은 이후의 영향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가 총자산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 부채비율, 기업의 성과가 증가할수록 총자산증가율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형자산증가율

<표 9-2>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3.1%,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3.4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유형자산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은행컨설팅 제공받는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유형자산증가율은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기간의 경과에 따른 Post에서만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가 유형자산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의 규모, 기업의 성과가 증가할수록 유형자산증가율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유형자산증가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유형자산증가율 Coeff.(p-value)	
Intercept	-1.913	(<.0001)***
Con	-0.066	(0.1249)
Post	-0.162	(0.0041)***
Con×Post	0.095	(0.138)
SIZE	0.131	(<.0001)***
LEV	0.06	(0.6427)
ROA	0.9	(0.0011)***
CAL	0.01	(0.7592)
CASH	-0.204	(0.5061)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031	
F-Value	3.49***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3) 자기자본증가율

<표 9-3>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자기자본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23%,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24.56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자기자본증가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자기자본증가율 Coeff.(p-value)	
Intercept	-0.281	(0.3631)
Con	-0.009	(0.7359)
Post	-0.037	(0.313)
Con×Post	0.003	(0.9356)
SIZE	0.04	(0.0315)**
LEV	-0.293	(0.0005)***
ROA	2.665	(<.0001)***
CAL	-0.08	(0.0002)***
CASH	0.028	(0.888)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230	
F-Value	24.56***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자기자본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은행의 컨설팅 제공을 받는 수진기업의 자기자본증가율은 미수진기업과 차이가 없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

내는 Post 변수는 자기자본증가율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가 자기자본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5%,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채비율(LEV), 유동비율(CAL)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보였다.

4) 매출액증가율

<표 9-4>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액증가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매출액증가율 Coeff.(p-value)	
Intercept	-0.491	(0.0548)*
Con	-0.032	(0.164)
Post	-0.045	(0.1352)
Con×Post	0.013	(0.7089)
SIZE	0.036	(0.0177)**
LEV	0.131	(0.0617)*
ROA	1.447	(<.0001)***
CAL	-0.044	(0.0137)**
CASH	0.111	(0.4997)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098	
F-Value	9.58***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표 9-4>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매출액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9.8%,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9.5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매출액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은행의 컨설팅을 받는 수진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미수진기업과 차이가 없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매출액증가율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가 매출액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5%, 10%,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동비율(CAL)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4.3.1.4 활동성지표

<표 10-1>부터 <표 10-5>는 [연구 가설1]의 [보조 가설 1-4]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영성과의 대용변수인 활동성지표로서 총자본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영업자산회전율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에는 기업규모, 수익률, 자산의 구조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1) 총자본회전율

<표 10-1>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총자본회전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11.7%,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11.4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총자본회전율과 통계적으로 부(-)의 값을 보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은행컨설팅 제공을 받는 수진기업이 미수진기업보다 활동성이 낮은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총자본회전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총자본회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총자본회전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총자본회전율 Coeff.(p-value)	
Intercept	0.023	(0.0098)***
Con	-0.003	(<.0001)***
Post	0.000	(0.9527)
Con×Post	0.003	(0.0064)***
SIZE	-0.001	(0.0412)**
LEV	0.012	(<.0001)***
ROA	0.031	(<.0001)***
CAL	0.002	(0.0073)***
CASH	0.018	(0.0017)***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117	
F-Value	11.42***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를 제외한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률

(ROA), 유동비율(CAL),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의 증가가 총자본회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유형자산회전율

<표 10-2>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유형자산회전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14.9%,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14.8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유형자산회전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유형자산회전율 Coeff.(p-value)	
Intercept	0.154	(0.8065)
Con	-0.197	(0.0006)***
Post	-0.025	(0.7396)
Con×Post	0.02	(0.8112)
SIZE	-0.015	(0.6828)
LEV	0.742	(<.0001)***
ROA	0.55	(0.1288)
CAL	0.315	(<.0001)***
CASH	-0.266	(0.5095)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149	
F-Value	14.84***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유형자산회전율과 통계적으로 부(-)의 값을 보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은행컨설팅 제공을 받는 수진기업이 미수진기업보다 활동성이 낮은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유형자산회전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간의 경과와는 무관한 결과라 해석된다.

통제변수로 부채비율(LEV)과 유동비율(CAL)의 증가가 유형자산회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 수준에서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의 증가가 유형자산회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매출채권회전율

<표 10-3>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매출채권회전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7.1%,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7.0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매출채권회전율과 통계적으로 부(-)의 값을 보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행컨설팅 제공을 받는 수진기업은 미수진기업보다 활동성이 낮은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매출채권회전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간의 경과와는 무관한 결과라 해석된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의 증가는 매출채권회전율을 감소시키고, 부채비율(LEV)과 총자산순이익률(ROA)은 매출채권회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출채권회전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매출채권회전율 Coeff.(p-value)	
Intercept	0.316	(0.0106)**
Con	-0.054	(<.0001)***
Post	0.021	(0.1456)
Con×Post	0.005	(0.754)
SIZE	-0.015	(0.0451)**
LEV	0.085	(0.012)**
ROA	0.132	(0.0651)*
CAL	-0.009	(0.3093)
CASH	0.141	(0.0755)*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071	
F-Value	7.02***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4) 매입채무회전율

<표 10-4>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매입채무회전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3.8%,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4.0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매입채무회전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매입채무회전율 Coeff.(p-value)	
Intercept	0.277	(0.4698)
Con	-0.124	(0.0004)***
Post	0.023	(0.612)
Con×Post	0.058	(0.2598)
SIZE	0.011	(0.6416)
LEV	-0.161	(0.1239)
ROA	-0.061	(0.7831)
CAL	0.008	(0.7704)
CASH	0.48	(0.0511)*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038	
F-Value	4.09***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매입채무회전율과 통계적으로 부(-)의 값을 보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행컨설팅 제공을 받는 수진기업이 미수진기업보다 활동성이 낮은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매입채무회전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간의 경과와는 무관한 결과라 해석된다.

통제변수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 증가는 매입채무회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업자산회전율

<표 10-5>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영업자산회전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11.2%,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10.9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5>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영업자산회전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영업자산회전율 Coeff.(p-value)	
Intercept	0.097	(0.0072)***
Con	-0.014	(<.0001)***
Post	0.005	(0.208)
Con×Post	0.006	(0.1985)
SIZE	-0.002	(0.4357)
LEV	-0.008	(0.4387)
ROA	0.1	(<.0001)***
CAL	-0.013	(<.0001)***
CASH	0.095	(<.0001)***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 ²	0.112	
F-Value	10.98***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영업자산회전율과 통계적으로 부(-)의 값을 보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행컨설팅 제공을 받는 수진기업이 미수진기업보다 활동성이 낮은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영업자산회전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은행 컨설팅의 제공에 따라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과 미수진기업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간의 경과와는 무관한 것 결과라 해석된다.

통제변수로 자산대비 수익률(ROA),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의 증가는 영업자산회전율을 증가시키고, 유동비율(CAL)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3.1.5 생산성지표

<표 11-1>부터 <표 11-2>는 [연구 가설1]의 [보조 가설 1-5]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영성과의 대용변수인 생산성지표로서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에는 기업규모, 수익률, 자산의 구조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1) 총자본투자효율

<표 11-1>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26.3%,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29.1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총자본투자효율과 통계적으로 부(-)의 값을 보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행컨설팅 제공을 받는 수진기업이 미수진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기

업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총자본투자효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에서도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은행컨설팅을 제공받는 수진기업(Con)의 생산성은 미수진기업보다 -0.077만큼 낮은 수준이나 컨설팅을 받은 이후 (Con×Post) 0.067 만큼 개선되었다. 그러나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은 여전히 -0.01(-0.077+0.067)로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총자본투자효율지표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총자본투자효율 Coeff.(p-value)	
Intercept	0.982	(<.0001)***
Con	-0.077	(<.0001)***
Post	0.005	(0.7779)
Con×Post	0.067	(0.0006)***
SIZE	-0.044	(<.0001)***
LEV	0.002	(0.957)
ROA	1.139	(<.0001)***
CAL	-0.023	(0.0235)**
CASH	0.292	(0.0017)***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263	
F-Value	29.12***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통제변수의 결과에서는 기업규모(SIZE)와 유동비율(CAL)이 증가할수록

총자본투자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성과(ROA),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가 클수록 총자본투자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가가치율

<표 11-2>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부가가치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13.2%,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13.00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부가가치율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부가가치율 Coeff.(p-value)	
Intercept	0.513	(<.0001)***
Con	-0.053	(<.0001)***
Post	0.024	(0.1069)
Con×Post	0.048	(0.0046)***
SIZE	-0.011	(0.1641)
LEV	-0.156	(<.0001)***
ROA	0.481	(<.0001)***
CAL	-0.046	(<.0001)***
CASH	0.018	(0.8252)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132	
F-Value	13.00***	
Obs.	1,025	

변수 설명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ΣMKT, ΣIND, ΣYEAR는 각각 외감여부, 제조업여부, 연도더미를 나타냄

컨설팅 수진기업을 나타내는 변수(Con)는 부가가치율과 통계적으로 부(-)의 값을 보이며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행컨설팅 제공을 받는 수진기업이 미수진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영컨설팅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Post 변수는 부가가치율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의 주요변수 Con×Post변수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은행컨설팅을 제공 받는 수진기업(Con)의 생산성은 미수진기업보다 -0.053만큼 낮은 수준이나 컨설팅을 받은 이후(Con×Post) 0.048 만큼 개선되었다. 그러나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은 여전히 $-0.005(-0.053+0.048)$ 로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결과에서는 부채비율(LEV), 유동비율(CAL)이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성과(ROA)가 클수록 부가가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여신자산 건전성

<표 12-1>부터 <표 12-2>는 [연구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여신자산 건전성 대용변수인 종합지표로서 신용등급(CREDIT), 신용평점(SCORE)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에는 기업규모, 수익률, 자산의 구조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4.3.2.1 신용등급(CREDIT)

다음의 <표 12-1>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신용등급(CREDIT)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49.7%,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73.37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신용등급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신용등급(CREDIT) Coeff.(p-value)	
Intercept	13.634	(<.0001)***
Con	0.887	(<.0001)***
Post	0.136	(0.6413)
Con×Post	-0.216	(0.3698)
SIZE	-0.029	(0.7888)
LEV	-7.619	(<.0001)***
ROA	13.583	(<.0001)***
CAL	-0.221	(0.0774)*
CASH	4.271	(0.0002)***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 ²	0.497	
F-Value	73.37***	
Obs.	1,025	

변수 설명 : CREDIT : 신용등급을 수치화한 값(1~20점) ; SCORE : 신용평점으로 신용 평가점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Con :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 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은행컨설팅 수진기업의 신용등급(CREDIT)이 미수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_1 = 0.887$). 그러나 신용평점(SCORE)과 마찬가지로 수진기업이 은행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를 나타내는 Con×Post변수가 유의하지 않아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 원인은 신용평점(SCORE)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가시키는 일관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기존 연구의 결과처럼 컨설팅성과 가시화가 장기간 소요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채비율(LEV), 유동비율(CAL)이 높을수

록 신용등급(CREDIT)이 낮아지고, 기업의 성과(ROA)와 현금 및 현금성 자산(CASH)이 높을수록 신용등급(CREDIT)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2 신용평점(SCORE)

<표 12-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신용평점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신용평점(SCORE) Coeff.(p-value)
Intercept	4.745 (<.0001)***
Con	0.064 (<.0001)***
Post	-0.007 (0.6875)
Con×Post	-0.014 (0.2913)
SIZE	-0.017 (0.005)***
LEV	-0.427 (<.0001)***
ROA	0.771 (<.0001)***
CAL	0.002 (0.7303)
CASH	0.210 (0.0013)***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567
F-Value	96.8***
Obs.	1,025

변수 설명 : CREDIT : 신용등급을 수치화한 값(1~20점) ; SCORE : 신용평점으로 신용 평가점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Con :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 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위의 <표 12-2>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진기업의 신용평점(SCORE)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로,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56.7%,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96.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컨설팅 수신기업은 신용평점(SCORE)이 미수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_1 = 0.064$). 그러나 수신기업이 은행 경영 컨설팅을 받은 이후를 나타내는 Con×Post변수가 유의하지 않아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 원인은 신용등급(CREDIT)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증가시키는 일관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기존 연구의 결과처럼 컨설팅성과 가시화가 장기간 소요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SIZE)가 클수록,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신용평점(SCORE)이 낮아지고, 기업의 성과(ROA)와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이 높을수록 신용평점(SCORE)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은행 기여도

<표 13-1>부터 <표 13-2>는 [연구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은행 기여도 대응변수인 종합지표로서 수신평잔과 여신평잔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모형에는 기업규모, 수익률, 자산의 구조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4.3.3.1 수신평잔

<표 13-1>은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신기업의 수신평잔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13-1>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수신평잔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수신평잔 Coeff.(p-value)	
Intercept	2.694	(0.3897)
Con	-1.531	(<.0001)***
Post	-1.367	(0.0054)***
Con×Post	2.560	(<.0001)***
SIZE	0.655	(0.0003)***
LEV	-1.699	(0.0394)**
ROA	-0.005	(0.9977)
CAL	-0.028	(0.8941)
CASH	8.291	(<.0001)***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²	0.215	
F-Value	21.00***	
Obs.	1,025	

변수 설명 : 수신평잔 : 고객기업의 3개월 예금평잔 ; 여신평잔 : 고객기업의 3개월 대출 평잔 ;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분석 결과,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는 21.5%,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21.00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의 수신평잔이 미수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_1 = -1.531$). 그러나 컨설팅을 받은 이후(Con×Post)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였다. 즉, 은행 컨설팅 수진기업은 컨설팅을 받은 이후 수진기업과 은행 간의 금융거래가 증가하여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외형적으로 수진기업과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SIZE)가 클수록, 현금 및 현금성자산(CASH)이 높을수록 수신평잔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비율(LEV)이 증가할수록 수신평잔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2 여신평잔

다음의 <표 13-2>는 은행컨설팅 제공이 수신기업의 여신평잔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표 13-2> 은행컨설팅 제공 후의 여신평잔

$$INDEX_{it} = a_0 + b_1 Con_{it} + b_2 Post_Con_{it} + b_3 Bank_Con_{it} + b_4 SIZE_{it} + b_5 LEV_{it} + b_6 ROA_{it} + b_7 CAL_{it} + b_8 CASH_{it} + \sum MKT + \sum IND + \sum YEAR + e_{it}$$

은행컨설팅 제공 후 (t+1~t+3)	여신평잔 Coeff.(p-value)	
Intercept	-0.844	(0.7967)
Con	-1.961	(<.0001)***
Post	-1.456	(0.0046)***
Con×Post	2.408	(<.0001)***
SIZE	0.912	(<.0001)***
LEV	1.259	(0.1439)
ROA	-2.388	(0.1891)
CAL	-0.165	(0.4534)
CASH	1.450	(0.4745)
ΣMKT	Included	
ΣIND	Included	
ΣYEAR	Included	
Adj. R ²	0.253	
F-Value	25.82***	
Obs.	1,025	

변수 설명 : 수신평잔 : 고객기업의 3개월 예금평잔 ; 여신평잔 : 고객기업의 3개월 대출평잔 ; Con: A은행의 수신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제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log(총자산) ; LEV : 총부채/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그 결과,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25.3%, 적합성을 나타내는 F-Value는 25.8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컨설팅 수진기업의 여신평잔은 미수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_1 = -1.961$). 그러나 컨설팅을 받은 이후(Con×Post)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2.408)을 보였다. 즉, 은행컨설팅 수진기업은 수신평잔과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받은 이후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증가하여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외형적으로 수진기업과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SIZE)가 클수록 여신평잔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실증결과 요약

다음의 <표 14>는 실증분석에 따른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먼저 경영성과인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대용변수로 가설 1-1 안정성지표로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를 살펴보았다. 부채비율의 분석결과는 수진기업의 경영컨설팅 이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입금의존도 및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가설 1-1을 지지하지 못했다. 부채비율 등의 안정성지표의 경우, 음(-)의 유의한 영향인 경우에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것이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의 유의한 영향이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관계가 개선되거나, 정보비대칭이 완화되어 대출기회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은 은행이 거래기업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지원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수진기업이 미수진기업에 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점을 감안할 경우 차입금이 증가한 것이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입금의 조달이 결론적으로 그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경영성과의 대용지표 가설 1-2인 수익성지표로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1, 이자보상배율2,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자보상배율2 에서만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익성지표의 가설 1-2는 결과적으로 일부채택을 지지하였다. 결과에서 이자보상배율2의 유의한 영향은 가설 1-5의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경영성과의 대용지표 가설 1-3인 성장성지표로서는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장성지표 비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가설검증은 기각으로 채택되었다. 그 의미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기업의 외형성장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영성과의 대용지표 가설 1-4인 활동성지표로서는 총자본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영업자산회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자본회전율에서만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일부채택을 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총자본이 줄거나 매출액이 증가하여야 도출되는 관계에서 매출액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성장성지표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총자본이 감소하는 결과임을 의미하는 바, 자본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영성과의 대용지표 가설 1-5인 생산성지표로서는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자본투자효율과 부가가치율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1-5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표 14> 가설 검증결과

검 증 가 설		채택여부
가설 1: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안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채택
1-3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4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활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채택
1-5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수진기업의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여신자산의 신용등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여신자산의 신용평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 기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 수신평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은행의 경영컨설팅은 은행 여신평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전체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결과의 의미는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으로 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개선 내지는 정보의 비대칭이 완화되어 대출기회가 확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차입금 조달이 이루어져 이를 통한 자본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컨설팅성과에 대하여 일관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됨을 주장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컨설팅 제공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 여신자산 건전성에 대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대용지표로 가설 2-1인 신용등급과

가설 2-2인 신용평점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용평점과 신용등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가설 2에 대하여는 지지하지 못했다. 이 가설검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여신자산 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검증한 경영성과가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등급과 신용평가가 구조적으로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인 은행의 경영컨설팅과 은행 기여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용지표로 가설 3-1인 수신평잔과 가설 3-2인 대출평잔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신평잔과 대출평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가설 3을 지지하였다. 가설검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차입금 조달을 통한 자본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됨으로써 유동성이 확보되어 은행에 대한 예금여력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V. 요약 및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과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변수를 이용한 다변량회귀모형과 매출액 및 자산규모를 이용한 통제기업 대응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각 다변량회귀분석에는 시장의 특성, 산업의 특성, 연도별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고, 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성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미치는 결과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성비율이 증가하였고, 총자산회전율이 증가하였으며 생산성이 유의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관적인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셋째로,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은행 기여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면 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고객관계가 개선되거나, 정보의 비대칭이 완화되어 대출기회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거래기업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개선 내지는 정보의 비대칭 완화로 차입금 조달을 통한 자본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됨으로써 유동성이 확보되어 은행에 대한 예금여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과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했던 상생관계에 대해서 실

중분석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었다. A은행의 기업컨설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기업컨설팅의 목적을 기업가치 향상과 고객관계 강화를 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컨설팅제공자 측면에서 관계개선을 통한 은행측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상생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컨설팅성과 측정에 있어 장기화 등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컨설팅성과 측정에 대한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영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비율에서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즉시성이 있는 자본구조 개선의 경우 유의성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한 상황에서 대부분 경영컨설팅 성과의 가시화가 장기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는 은행컨설팅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점, 은행컨설팅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나 수진기업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는 점, 현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부족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수진기업과 은행간의 관계개선 내지는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 되고 수진기업의 대출기회가 확대됨으로써 현금흐름 및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러한 효과가 은행의 기여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2 정책적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기업경영실적의 악화로 은행경영환경이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은행의 경영컨설팅 역할을 이론을 통하여 강조하고 실증적 관점에서 은행과 수진기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은행은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진기업의 경영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선 없이는 은행 또한 실질적으로 여신자산의 건전성을 증가시키기 어렵다. 역으로 은행의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이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 향상을 통한 자본비용 절감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투명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컨설팅의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선택적 집중을 통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무성과 중 안정성과 일부 활동성에서 유의한 성과를 보인 것에 착안하여 자본과 부채의 효율적 조달 등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과 활동성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선택적 우선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은행컨설팅 역량 제고를 위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은 물론 재무성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방법론 개발과 도입 등을 통한 품질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최고책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컨설팅자원의 역량 제고에는 막대한 재무적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컨설팅 지원은 은행의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은행도 기업과의 관계 개선 및 도모를 통하여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는 상생관계의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컨설팅지원에 따른 모든 자료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성과가 단기적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데이터의 한계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 데이터에 기반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의 경영컨설팅 데이터의 한계와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이론적 근거와 더욱 명확한 실증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 기업의 특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 점, 은행의 컨설팅 정보가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여 A은행의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은행의 경영컨설팅 효과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컨설팅이 수진기업과 은행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증가시켰다는 점과 다른 경영성과에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은행과 수진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은행컨설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성무·류덕위(2012), “신탁중앙회 경영컨설팅이 단위신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2호.
- 강종만·김영도(2010),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 고영우·이세철(2012), “정보비대칭과 타인자본비용의 관계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3권, pp. 41-64.
- 김상봉·김정렬(201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pp. 1381-1399.
- 김수환(2005), “중소기업 소유구조가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원』
- 김익성(2008), “중소기업 컨설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8권 제1호.
- 김현영·이철규·서철승·오인하(2013),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프로세스가 조직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공학회지』, 제18권 제3호.
- 나영·진동민(2000),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권 제1호.
- 박성환(2004), “예금상황과 대출상황에 따른 서비스품질과 고객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2010), “담보대출이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5호, pp. 2497-2519.
- 박춘래·황서진·이충섭(2011)a, “컨설팅트역량이 경영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컨설팅 의뢰기업 조직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11권 제4호.

- 박춘래·황서진·이충섭(2011)b, “경영컨설팅과 기업성과의 관계 및 컨설팅 활용도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6호.
- 배용섭·안영진(2013), “경영컨설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컨설턴트의 역량에 관한 연구: 컨설팅사 및 수진기업 특성의 조절효과,” 『서비스경영학회지』, 제14권 제3호.
- 배운호(2009), 『국내 은행산업 활성화 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원(2012), 『부동산 가격변동이 은행 여신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 신민식·김수은(2014),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가 초과현금 보유와 그 한계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3권 제4호, pp. 1287-1316.
- 양용현·유연우(2014), “은행의 경영컨설팅이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와 은행의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은행의 수진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2권 제5호.
- 원상희·전봉걸(2013), “기업의 신용등급이 성과 및 활동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융정보연구』, 제2권 제1호, pp. 36-60.
- 이상석(2009), “중국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2호.
- 이성환(2010), “2005년 쿠폰제 경영컨설팅 기업의 재무성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 이재연(2001), “고객의 은행수익성 기여도 분석 및 이용,” 『한국금융연구원주간금융동향』, 제10권 제26호.
- 이진열(2013), “디자인경영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 장동인·이광현·송상호(2011), “컨설턴트의 역량이 컨설팅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진기업의 지지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연구』, 제13권 제3호.

- 장용삼·곽홍주(2009), “Consulting Management가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 컨설팅과 부동산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제6권 제1호.
- 전기수(2009), 『중소벤처기업 경영컨설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홍민·차승민(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4권 제6호, pp. 203-225.
- 정채중·신범철(2012), “신용등급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생산성논집』, 제26권 제1호: 82-103.
- 조봉환(2008), 『국내은행의 역기능 현상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한욱·남재현(2012), “신용정보산업과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65-91.
- 최창호(2012), “중소기업 재무컨설팅 활용을 위한 재무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 홍성수(2011). 『금융서비스 품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은행의 마케팅 및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 Ashbaugh-Skaife, H., Collins, D. W., and LaFond, D. (2006).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Firms' Credit Rat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 42(1/2), pp. 203-243.
- Beaver, William H.(1966),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Failu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 Vol. 4, Supplement, pp. 71-111.
- Botosan, C. (1997). "Disclosure Level and Cost of Equity Capital" *『The Accounting Review』* Vol. 72, pp. 323-349.
- Botosan. C., and M. Plumlee (2002), "A Reexamination of disclosure Level and the Expected Cost of Equity Capital,"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0, pp. 21-40.
- Diamond, D., and R. Verrecchia(1991), "Disclosure, liquidity, and the cost of capita," *『Journal of Finance, September』* . pp. 1325-1360.
- Easley. D., and M. O'Hara (2003), "Information and the Cost of Capita," *『Journal of Finance』* , 59(4), pp. 1553-1583.
- Edward I. Altman(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The Journal of Finance』* , Vol. 23, No. 4. . pp. 589-609.
- Francis. J., R. Lafond, P. Olsson. and K. Schipper (2005), "The Market Pricing of Accruals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9, pp. 295-327.
- Jang, Y. & Lee, J.(1998), "Factors Influencing the Sucess of Management Consulting Pro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 16(2), pp. 67-72.

- Mansi. S .. W. Maxwell and D. Miller (2007), “Analysts Forecast Characteristics and the Cost of Debt,” 『Working Paper』 , University of Arizona.
- Mazumdar S. C., Sengupta P. (2005), “Disclosure and the Loan Spread on Private Debt,” 『Financial Analyst Journal』 , Vol. 61, No. 3.
- Sengupta, P. (1998), “Corporate Disclosure Quality and the Cost of Debt,” 『Accounting Review』 , vol. 73, no. 4 (October) pp. 459–474.
- Simon, A. & Kumar. V., “Clients Views on Strategic Capabilities Which Lead to Management Consulting Success,” 『Management Design』 ,Vol. 41, pp. 362–372.
- Thomas F. Pogue and Robert M. Soldofsky(1969). “What's in a Bond Rating,” 『Th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Vol. 4, No. 2 (Jun), pp. 201–228.

부 록

1. 변수의 정의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차입금의존도	총차입금 ¹⁶⁾ / 부채와 자본총계 × 100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금융기관차입금 ¹⁷⁾ / 자산총계 × 100
수익성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100
매출액경상이익률	경상이익 ¹⁸⁾ /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100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100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100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금융비용 ¹⁹⁾ /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100
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평균부채와 자본총계 × 100
이자보상배율 ¹	영업이익 / 금융비용(2) ²⁰⁾
이자보상배율 ²	EBITDA ²¹⁾ / 금융비용(2)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평균자본총계 × 100
성장성지표	
총자산증가율	(당기자산총계 / 전기자산총계) × 100 - 100
유형자산증가율	(당기유형자산 / 전기유형자산) × 100 - 100
자기자본증가율	(당기자본총계 / 전기자본총계) × 100 - 100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전기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100 - 100
활동성지표	
총자본회전율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당기 부채와 자본총계 + 전기 부채와 자본총계 평균) / 2 × 100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당기 유형자산 + 전기 유형자산) / 2 × 100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당기 매출채권+영업미수금+영업외화미수금+공사미수금+분양미수금+임대미수금) + (전기 매출채권+영업미수금+영업외화미수금+공사미수금+분양미수금+임대미수금) / 2) × 100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당기 매입채무+공사미지급금+영업미지급금) + (전기 매입채무+공사미지급금+영업미지급금) / 2) × 100
영업자산회전율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당기 재고자산+매출채권+영업미수금+영업외화미수금+공사미수금+분양미수금+임대미수금) + (전기 재고자산+매출채권+영업미수금+영업외화미수금+공사미수금+분양미수금+임대미수금) / 2) × 100

생산성지표	
총자본투자효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인건비+노무비+복리후생비+이자비용+사채이자-이자수익+임차료비용+제조원가임차료비용+리스료+제조원가리스료+세금과공과+제조원가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제조원가감가상각비+특별상각) / 부채와 자본총계의 평균 × 100
부가가치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인건비+제조원가노무비+복리후생비+이자비용+사채이자-이자수익+임차료비용+제조원가임차료비용+리스료+제조원가리스료+세금과공과+제조원가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제조원가감가상각비+특별상각) / 매출액(특정매입원가 포함) × 100
종합지표점수	
신용평점(Score)	A은행의 신용평가점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A은행의 신용등급을 수치화 한 값 ²²⁾
신용등급(Credit)	신용등급이 "AA"이면 CREDIT=18 신용등급이 "A"이면 CREDIT=15 신용등급이 "BBB+"이면 CREDIT=13 신용등급이 "BBB"이면 CREDIT=12 신용등급이 "BBB-"이면 CREDIT=11 신용등급이 "BB+"이면 CREDIT=10 신용등급이 "BB"이면 CREDIT=9 신용등급이 "BB-"이면 CREDIT=8 신용등급이 "B+"이면 CREDIT=7 신용등급이 "B"이면 CREDIT=6 신용등급이 "B-"이면 CREDIT=5 신용등급이 "CCC"이면 CREDIT=3 신용등급이 "CC"이면 CREDIT=2 신용등급이 "C"이면 CREDIT=1
수신평잔	고객기업의 3개월 예금평잔
여신평잔	고객기업의 3개월 대출평잔

- 16) 총차입금 = 단기사채 + 단기차입금 + 단기유동화채무 + 유동성장기부채 - 기타유동성장기부채 + 장기사채 + 장기차입금 + 금융리스부채 + 장기유동화채무 + 정리및화의채무
- 17) 금융기관차입금 = 총차입금 - 특수관계자단기차입금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 특수관계장기차입금 -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 18) 경상이익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재해손실 + 특별상각 + 해외사업환산차상각) -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 해외사업환산대환입)
- 19) 금융비용 = 이자비용 + 사채이자
- 20) 금융비용(2) = 이자비용 + 사채이자 + 매출채권매각손실

2. A은행의 경영컨설팅 만족도 설문지

『□□ ○○컨설팅』 만족도 조사

(20 . .)

□□은행

귀중

기업고객명 :

(FAX : 02-XXXX-XXXX)

(응답자 직위/성명)

본 설문은 『□□ ○○컨설팅』 서비스를 경험하신 고객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기업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본 설문결과는 은행의 내부 분석자료로만 활용됩니다.

1. 귀사에서 □□ ○○컨설팅이 수행된 분야는 주로 어떤 항목이었습니까?

① 재무진단

② 세무진단

③ 인사/성과평가

④ 가업승계자문

⑤ 원가분석/관리회계

⑥ 내부통제자문

⑦ IPO 자문

⑧ 법인전환

⑨ 기 타()

2. □□은행의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신 기간은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짧음

② 짧음

③ 보통

④ 적당

⑤ 매우 적당

3. 위 2번 문항에서 ①, ②라고 답변하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주관식 문항) ()

(예: 1주, 1개월)

4. □□ ○○컨설팅에 대한 귀사의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1)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이연자산상각 + 대손상각비 + 기타대손상각비 + 퇴직급여충당전입액 + 퇴직급여

22) 표본 중에 Credit이 17점, 16점, 4점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다.

5. 추가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분야입니까?

(문항 1의 보기 참조) (복수선택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향후 □□은행과의 금융거래 확대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거래유형
입니까? (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복수선택가능)

① 기업대출 ② 예금/적금 ③ 외국환 ④ 퇴직연금
⑤ 자금관리서비스 ⑥ 종업원거래/ 급여이체 ⑦ 퇴직연금/기업카드
⑧ 기 타(Cyber Branch, S-Erp)

7. □□은행의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신 후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A은행 신용등급 정의

등급	기업신용등급 정의
AAA	원리금상환능력이 최상급임 - 현재 및 장래의 원리금상환능력이 매우 안정적이며, 상환능력요소의 일부 변화시에도 신용도의 근본적 저하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위험 최소화 -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업계내 최고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외부자금 조달전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로서 현금흐름을 매우 우수하게 관리함 - 유동성, 안정성지표, 경영능력 최상위 및 산업내 최상위 실적 유지 - 안정적인 시장지위 확보, 자금조달능력 및 사업추진능력 우수, 시장지위 유지 및 성장가능성 최우함
AA	원리금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보다는 열위 - 원리금 상환능력의 여유폭이 AAA 보다 다소 낮으며, 상환능력 요소의 변동에 따른 신용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투자위험은 적음 - 유동성 우수, 강한 안정성 지표, 탁월한 경영능력, 산업내 상위실적 유지 - 대부분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도 동업계 평균보다 우수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며 대체로 유동성장기부채 상환후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로서, 현금흐름이 우수함 - 시장지위가 안정적이며, 자금조달능력 및 사업추진능력 양호하고 시장지위 유지 및 성장가능성이 우수함
A	원리금상환능력은 우수하나 환경 및 경제여건 악화에 영향을 받기 쉬움 - 원리금 상환능력은 우수한 편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존재 - 유동성 양호하며, 안정성지표 및 경영능력 우수하고 산업내 중상위 실적을 유지함 - 시장에서의 지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성장가능성 및 자금조달능력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이 존재
BBB	원리금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상환능력요소의 일부가 부족하여 불안정 요인이 일부 있음 - 동업계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익률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유지하나 경제불황,업계난항 및 제품주기상태가 나쁠 때 다소 어려움을 겪음. 경제상황 악화 및 경쟁압력이나 이자율 인상에 동업계의 주도기업보다 민감하게 반응함. 수익성 또는 현금흐름에 일부 취약점은 있으나 부채상환능력은 적정함. - 국내시장에서의 지위는 중위 이상이며, 성장가능성 및 자금조달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환경 및 경제여건 악화가 채무이행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음
BB	현재 및 단기적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은 있으나 장기전망은 불안정 - 동업계 평균 수준의 수익률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유지하나 경제불황,업계난항 및 제품주기상태가 나쁠 때 어려움을 겪음. 경제상황 악화 및 경쟁압력이나 이자율 인상에 현저한 영향을 받으며, 수익성 또는 현금흐름에 취약점은 있으나 단기적 부채상환능력은 적정함. - 현재 시장지위는 확보하고 있으나, 현상유지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현재 수준의 외형 시험은 예상되나, 자금조달능력은 다소 의문시 됨
BB-	현재 원리금 상환능력은 있으나, 단기 및 장기전망은 불안정 - 동업계 평균 수준의 수익률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유지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다소 열위하며 경제불황, 업계난항 및 제품주기상태가 나쁠 때 어려움을 겪음. 경제상황 악화 및 경쟁압력이나 이자율 인상에 현저한 영향을 받으며, 수익성 또는 현금흐름에 취약점은 있으나 현재 부채상환능력은 적정함. - 현재의 시장지위 유지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내부 체계는 양호하므로 외부환경이 호전되면 상위등급으로의 전위가능성이 높음

B	현재 원리금상환능력이 다소 불안정하나,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음 - 현재 및 장래의 부채 상환능력 다소 불안정하나, 원금의 일부 상환이 가능하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을 감안할 때, 향후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 - 하위등급에 비해 시장기반이나 기술수준, 자금조달능력 등이 비교우위에 있으며, 투기적요소는 미미함.
B-	현재 원리금 상환능력 다소 불안정하며, 향후에도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기적 요소가 있음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조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상존 - 시장기반 및 성장가능성이 취약하며, 기술수준이나 (계획)사업추진능력이 다소 의문시되고 제도금융권에서의 신용차입 가능성이 거의 없음
CCC	현재 원리금 상환능력이 불안정하며, 부도위험 또는 원리금상환에 관한 위험이 일부 존재함 -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현재에도 불안 요소가 매우 크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커 매우 투기적임 - 관련업종 및 업체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자금 조달능력의 한계 및 (계약)사업의 추진능력이 의문시됨 - 법정관리, 화의, 기업개선작업 등 채무재조정여신 보유 기업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
CC	부도위험 또는 원리금상환에 관한 위험이 높음. -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자본구조, 성장성 등 재무제표상 부실요인이 심화되어 장래 부채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경제여건 및 환경 악화뿐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매출 및 수익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영업손실, 자본잠식, 유동성이 거의 없고, 부채비율도 매우 높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임. 추가 자금조달능력이 거의 상실함. - 법정관리, 화의인가, 기업개선작업 기업 일반
C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 자체적인 부채상환능력이 불충분하며 대체로 연체임. 만기시에는 기한연장이나 대환으로 대처함. 재무제표상 부실요인이 심각하여 즉시 시정되지 않을시 부도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매출 및 수익이 매우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으며, 유동성이 없고,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서 원리금 상환은 물론 일상적인 영업활동도 어려운 상태임. - 법정관리, 화의인가, 기업개선작업 기업 중 정상화가 의문시되는 기업
D	부도기업, 불량거래처(1, 2, 3, 4등급) 또는 법정관리, 화의신청 상태 - 부도, 파산등의 사유로 청산중인 기업, 법정관리, 화의, 기업개선작업 등 채무재조정기업으로 갹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 - 이미 은행의 손실로 처리된 차입금을 보유한 기업

4. 컨설팅 수진 전/후의 차이분석

Variables	컨설팅 수진 전 (N=385)	컨설팅 수진 후 (N=236)	t-value
부채비율	1.447	1.949	-3.89***
차입금의존도	0.263	0.370	-6.37***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0.251	0.358	-6.46***
매출액영업이익률	0.041	0.043	-0.55
매출액경상성이익률	0.033	0.034	-0.02
매출액세전계속사업이익률	0.034	0.034	-0.08
매출액순이익률	0.028	0.028	0.07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0.014	0.020	-4.03***
총자본순이익률	0.045	0.044	0.05
이자보상배율1	0.088	0.055	2.23**
이자보상배율2	0.070	0.085	-1.81*
자기자본순이익률	0.104	0.099	0.28
총자산증가율	0.127	0.121	0.33
유형자산증가율	0.178	0.159	0.50
자기자본증가율	0.175	0.128	1.76*
매출액증가율	0.108	0.091	0.81
총자본회전율	0.013	0.015	-3.02***
유형자산회전율	0.198	0.171	0.59
매출채권회전율	0.070	0.093	-2.72***
매입채무회전율	0.154	0.230	-2.63***
영업자산회전율	0.037	0.047	-3.30***
총자본투자효율	0.223	0.268	-3.19***
부가가치율	0.160	0.215	-4.67***
신용등급	10.418	10.280	0.75
신용평점	4.279	4.260	1.50
수신평잔	9.653	12.530	-9.06***
여신평잔	10.930	14.085	-8.94***
SIZE	16.484	16.751	-3.92***
LEV	0.605	0.598	0.55
ROA	0.047	0.039	1.45
CAL	1.275	1.326	-0.94
CASH	0.047	0.039	1.97**

5. 극단치 제거 전 데이터의 기술통계량

Variables	MEAN	STD	MIN	Q1	MEDIAN	Q3	MAX
Con	0.420	0.494	0.000	0.000	0.000	1.000	1.000
Post	0.606	0.489	0.000	0.000	1.000	1.000	1.000
Con×Post	0.230	0.421	0.000	0.000	0.000	0.000	1.000
부채비율	-19.274	145.390	-1000	0.699	1.475	2.528	98.962
차입금의존도	0.348	0.230	0.000	0.179	0.360	0.504	1.969
금융기관차입금의존도	0.336	0.226	0.000	0.170	0.344	0.497	1.969
매출액영업이익률	0.032	0.113	-2.168	0.008	0.034	0.065	0.573
매출액경상성이익률	0.020	0.142	-2.822	0.003	0.020	0.052	0.566
매출액예전계속사업이익률	0.022	0.117	-1.578	0.003	0.020	0.053	0.566
매출액순이익률	0.017	0.112	-1.578	0.002	0.018	0.047	0.512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0.020	0.028	0.000	0.006	0.014	0.027	0.559
총자산순이익율	0.036	0.089	-0.794	0.003	0.029	0.069	0.467
이자보상배율1	-7.723	88.072	-1000	0.004	0.019	0.053	50.372
이자보상배율2	-0.859	31.297	-1000	0.018	0.039	0.081	56.369
자기자본순이익율	-18.456	134.959	-1000	0.007	0.080	0.186	4.634
총자산증가율	-0.846	31.240	-1000	-0.001	0.064	0.204	3.234
유형자산증가율	-1.649	44.198	-1000	-0.050	0.001	0.164	38.557
자기자본증가율	-17.403	131.436	-1000	0.003	0.073	0.231	6.596
매출액증가율	-0.829	31.248	-1000	-0.042	0.047	0.205	15.548
총자본회전율	0.015	0.013	0.000	0.008	0.013	0.019	0.282
유형자산회전율	0.443	2.362	0.000	0.020	0.041	0.117	54.848
매출채권회전율	0.141	0.506	0.000	0.037	0.063	0.107	11.508
매입채무회전율	-18.041	139.603	-1000	0.054	0.104	0.196	433.065
영업자산회전율	0.050	0.060	0.000	0.023	0.037	0.057	1.037
총자본투자효율	0.268	0.251	-0.269	0.151	0.241	0.353	4.838
부가가치율	0.195	0.163	-0.805	0.087	0.172	0.276	0.955
신용등급	9.863	2.608	1.000	9.000	10.000	11.000	18.000
신용평점	4.236	0.180	3.189	4.140	4.235	4.345	4.665
수신평잔	11.004	3.560	0.513	10.409	12.129	13.317	16.291
여신평잔	12.642	3.790	1.671	12.524	13.916	14.843	17.184
SIZE	16.521	0.867	13.813	15.932	16.450	17.125	19.212
LEV	0.621	0.197	0.139	0.496	0.636	0.731	2.150
ROA	0.034	0.088	-0.639	0.004	0.029	0.070	0.448
CAL	1.319	0.936	0.054	0.797	1.118	1.562	12.987
CASH	0.047	0.061	0.000	0.007	0.024	0.067	0.416

Con: A은행의 수진기업이면 1, 아니면 0

Post : 은행 컨설팅이 제공된 연도 이후 통계기업을 포함한 모든 표본을 1, 아니면 0

Con×Post : Con과 Post의 상호작용 변수

SIZE : $\log(\text{총자산})$

LEV : 총부채/총자산

ROA : 당기순이익/총자산

CAL : 유동자산/유동부채

CASH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자산

ABSTRACT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Provided by a Bank to Its Client Companies on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ties

– Focused on the Case of A Bank–

Yang, Yong-Hyeon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Recently, the financial industry has got bigger by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with the global trend such as incorporating subsidiary businesses and internalization, etc. The environment the banking industry is put has become more competitive with the changing situations like the Korean banking industry entering into the maturity stage, changes of consumption patterns of consumers, and strengthening of regulation and surveillance over the financial industry, etc.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financial industry to adopt new growth strategies such as examination of changing demands of customers and cultivation of new markets to improve growth potential and profitability.

Private companies, subjects of loan assets of banks, are under the economic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the low growth trend and shortened life-cycles due to heated competition among them. Therefore, they are forced to restructure themselves to respond to the changed environment.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companies and slowdown of growth lead to troubles of companies, and, then, to the damaging of soundness of loan assets of banks, increasing the risk of joint troubl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in which bank and company can live together.

In the environment where there are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joint failure of bank and company affected by the increasing uncertainty of the banking industry and deteriorating management environment, this research,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consulting provided by banks with the real data on it, aims to increase the interests among company CEOs in such consulting given by banks and suggest a long-term strategic direction on it.

Up to now, previous researches on it have tended to focus on the effectiveness of such consulting on the companies which receive consulting. There have been not sufficient researches that focus on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bank and company. Given the importance of such interdependency between both partie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To examine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bank and company, this research examined management performance on the part of company, and soundness of loan assets and contribution of it to the bank on the part of bank. This research selected two companies — a company which received management consulting from A bank and a control company which is similar to the previous company in the

respect of the scale of total assets and sales, but did not get such consulting — and analyzed the data from the two companies.

To examine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on the company and the bank, this research used the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using dummy variables, and the control company paired technique using sales amount and assets size. In each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the fixed effect model which controls market characteristics,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yearly characteristics. To control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various characteristics variables were included in the model.

The analyses of the data resulted in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re was no consistent,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f management consulting by bank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targeted companies. But,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data resulted in the findings that stability and asset turnover ratios increased and productivity has significantly been improved.

Second, there was no consistent and significant effects of management consulting by bank on the soundness of loan assets of the bank.

Third, there was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consulting by the bank and the contribution of the company which received consulting to the bank.

The abov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It seems that management consulting improves the company's relationship with its clients and expands its loan opportunities as information asymmetry is alleviated.

Management consulting of a bank given to its client companies is used as a means of marketing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its clients. It means that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bank and company and allevi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lead to the improvement of capital structure by securing needed money,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improvement of cash flow and securing of fluidity, expanding its capacity to deposit money in the bank.

It was found that, though management consulting did not lead to consistent effect on the targeted company, it was effective partially. Above all, management consulting was found to contribute to the performance of the bank which provides consulting by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its client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found positive effects of management consulting on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bank and its client companies. By analyzing the contribution of management consulting to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bank and its client companies, this research displayed both the importance and problems of such consulting, and suggested the theoretical basis on the future direction of such consulting.

Nevertheless, given that the effects of consulting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time, and that there are some limits in the data used in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find the suitable method of providing management consulting by using long-term data.

Key words : bank consulting, the Win-Win Relationship, management performance, soundness of loan assets, contribution to the bank